



북한산큰숲,은평

은평구 관광객 방문 및 소비패턴 분석

(2026년 은평구 빅데이터 분석지원 용역)

분석 보고서 2026.06



은평구 관광객 방문 및 소비패턴 분석

CONTENTS



I 분석 개요

II 분석 결과 요약 및 제언

III 분석 결과



CHAPTER

I



은평구 관광객 방문 및 소비패턴 분석



분석 개요

- 01. 분석 개요
- 02. 분석 데이터 정의
- 03. 분석 항목

01 분석 개요

분석 성격

- 본 보고서는 은평구 관광코스 개발을 위해 제안된 주요 관광·상권·문화·자연 거점 9개소의 체류성, 소비성, 외부유입성, 이동연계성을 진단하는 대표지역 분석 보고서임.
분석 결과는 은평구 대표 관광코스 후보 도출 및 거점별 관광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분석 목적

- 직관과 경험 중심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다변화된 관광 트렌드에 대응하는 객관적·체계적 전략 수립
- 빅데이터(체류·카드소비 등) 정밀 분석을 통한 방문객 행동 특성 파악 및 데이터 기반 대표 코스 개발로 은평구 관광 브랜드 경쟁력 강화

분석 기간

- 2023년 3월 1일 ~ 2026년 2월 28일 (최근 3개년)

분석 지역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대 (진관사, 한옥마을, 연신내역 등 주요 관광거점 9개소 중심)

분석 항목

- 1) 관광거점별 체류 규모, 정주 대비 초과체류, 체류배율, 시간대·주말 특성 분석
- 2) 은평구 내부·외부 유입지역, 주요 발원지, 관광거점별 접근 수단 및 광역 연계성 분석
- 3) 외국인 소비 집중 거점, 업종별 소비 구조, 시간대별 소비 패턴 및 외국인 특화 가능 거점 도출
- 4) *핵심 앵커 거점과 이동축을 검증하고, 데이터 기반 대표 관광코스 후보 및 최종 코스 선정

기대 효과

- 1) 생활권형 상권 거점과 자연·전통문화·종교형 목적 방문 거점을 구분하여 거점별 맞춤형 관광정책 수립 가능
- 2) 핵심 외부 유입지역을 파악하여 서울 서북권·경기 접경권 대상의 광역 관광 마케팅 전략 수립 가능
- 3) 소비 발생 거점을 중심으로 쇼핑·식음·문화 소비를 연결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 확대

*핵심 앵커 거점 : 대표 관광코스의 중심이 되는 거점, 코스 안에서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다른 관광거점으로 이동을 연결하며, 체류·소비가 함께 발생하는 기준점 역할을 하는 곳

I. 분석 개요

01 분석 범위 및 대상 관광거점

▶ 분석 범위

본 분석은 은평구청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코스 개발 후보지로 제안한 9개 거점을 대상으로 함. 생활인구, 카드소비, 생활이동 데이터를 활용하여 거점별 체류성, 소비성, 외부유입성, 이동연계성을 검토하고 대표 관광코스 개발 가능성을 진단함

은평구 주요 관광거점 위치도



분석 범위

공간 범위: 은평구 9개 관광거점, 250M 격자 기준

시간 범위: 2023.03 ~ 2026.02

분석 단위: 관광거점, 월, 분기, 시간대

관광거점 선정 경위 및 분석 대상

분석 대상 9개 거점은 은평구청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코스

개발 후보지로 제안한 지역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본 분석은 해당 거점의 체류·소비·이동 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대표 관광코스 개발 가능성을 진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 | |
|------------------|---------------|
| 1.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 | 6. 사비나 미술관 일대 |
| 2. 응암동 먹자골목 | 7. 은평한옥마을 일대 |
| 3. 연신내역 일대 | 8. 진관사 |
| 4. 불광동 먹자골목 | 9. 북한산성 입구 |
| 5. 롯데몰 (구파발역 일대) | |

I. 분석 개요

02 분석 데이터 정의

» 분석 데이터 정의

본 분석에서 활용한 생활인구, 카드소비, 생활이동 데이터는 관광거점의 체류·소비·이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보조 지표로 활용하였으며, 각 데이터의 집계 기준과 포착 범위에 따라 해석상 유의가 필요함.

데이터명	출처	활용 내용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서울특별시 250M 격자 생활인구	서울특별시 디지털도시국 데이터 전략과	거점별 체류 규모 및 시간대별 체류 특성 파악	은평구	2023년 3월 ~ 2026년 2월
행정동 주민등록인구	통계청	정주 기준선 및 초과체류인구 산정		
업종별·시간대별· 성연령별 카드소비	신한카드	소비 규모, 업종 구조, 소비 피크 분석		
수도권 생활이동 OD	KT	거점 간 이동량 및 연계 가능성 분석		
수도권 생활이동 수단		차량·버스·도보 등 접근수단 분석		

구분	해석 유의사항
생활인구	생활인구는 특정 시점에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인구를 의미하며, 관광객뿐 아니라 거주민, 통근·통학자, 상권 이용자, 단순 방문자 등이 포함될 수 있음. 따라서 직접적인 관광객 수가 아니라 관광거점의 체류 규모, 방문 가능성, 생활권 이용 강도를 판단하는 보조 지표로 해석함
카드소비	카드소비 데이터는 가맹점 소재지 기준의 카드 승인금액을 중심으로 집계되며, 현금결제, 일부 간편결제, 온라인 소비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절대 소비액보다 거점 간 상대적 소비 규모, 업종별 소비 구조, 시간대별 소비 패턴을 중심으로 해석함
생활이동	생활이동 데이터는 출발지·도착지 기반 이동 흐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나, 개별 이동의 실제 관광 목적이나 동일인의 순차 방문 경로를 직접 식별하는 자료는 아님. 따라서 관광거점 간 이동축과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는 보조 자료로 해석함

CHAPTER

II



은평구 관광객 방문 및 소비패턴 분석



분석 결과 요약 및 제언

01. 요약

02. 제언

II. 분석 결과 요약 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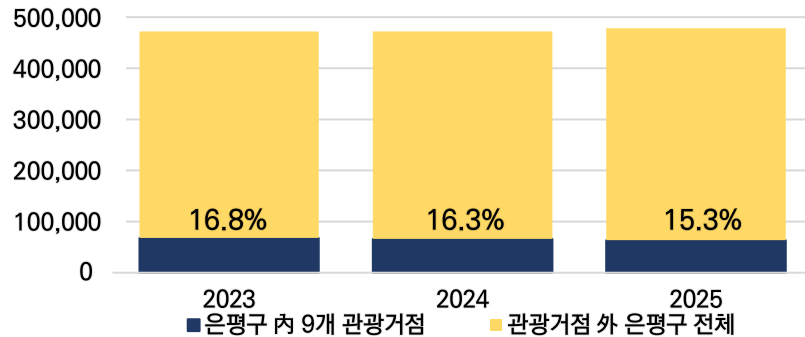
01 분석 결과 요약

▶▶ 생활인구 현황

관광거점 생활인구 비중은 감소했으나,
롯데몰·연신내역 등 생활권·상권형 거점 중심의 체류 기반은 유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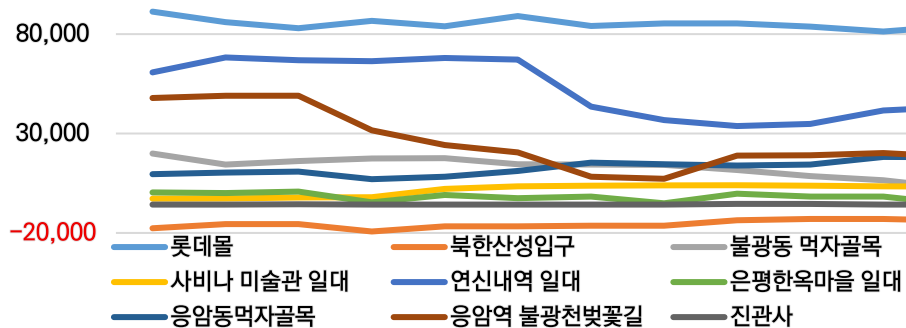
생활인구 현황

관광거점 내 생활인구 비중은 2023년 16.8% → 2025년 15.3%로 감소함



관광거점별 초과체류인구 변화

체류인구는 롯데몰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나며, 연신내역은 감소세, 응암동 먹자골목은 증가세를 보여 생활권·상권형 체류 구조가 일부 재편되는 흐름이 확인됨



자연·종교형 거점은 주말 점심·오후 체류가 강화되어,
상시 체류보다 목적 방문형 관광 특성이 뚜렷함

시간대별 주말/평일 배율 현황

진관사와 북한산성 입구는 점심~오후 시간대 주말 체류 배율이 가장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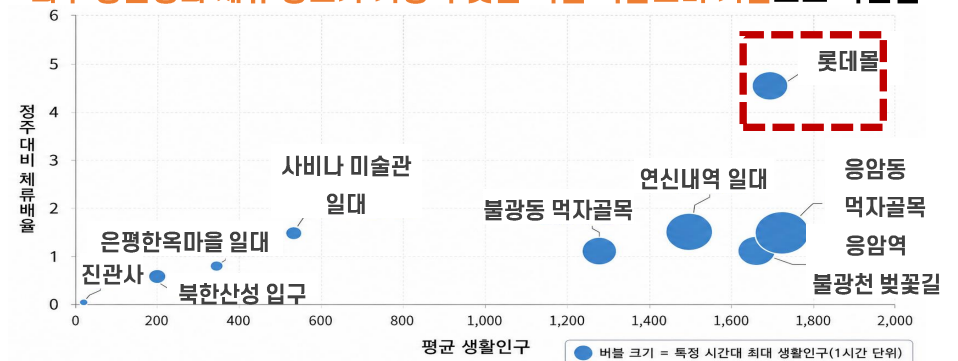
자연·종교·등산형 목적 방문 거점으로 해석

관광거점명	이른 아침(0~6)	오전(6~11)	점심(11~14)	오후(14~17)	저녁(17~21)	심야(21~24)
롯데몰	1.02	1.08	1.24	1.22	1.08	1.02
북한산성 입구	1.06	1.29	1.44	1.63	1.37	1.07
불광동 먹자골목	1.03	1.05	1.1	1.13	1.05	1.02
사비나 미술관 일대	1.02	1.06	0.98	0.98	1.01	1.03
연신내역 일대	1.07	1.02	1.05	1.05	1.05	1.05
은평한옥마을 일대	0.95	0.96	1.12	1.18	1.09	1.02
응암동 먹자골목	1.06	1.14	1.26	1.16	1.08	1.05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	1.03	1.14	1.24	1.21	1.09	1.03
진관사	1.04	1.27	1.72	1.76	1.14	1.05

정주 대비 체류 인구 현황

롯데몰은 평균 생활인구(1,700명)와 정주대비 체류배율(4.6)이 모두 높아

외부 방문성과 체류 강도가 가장 뚜렷한 핵심 복합소비 거점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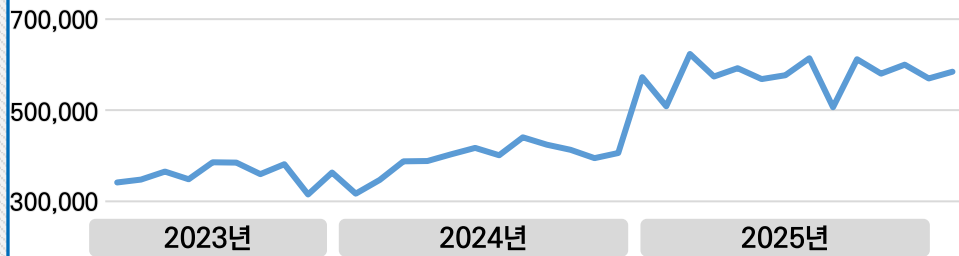
01 분석 결과 요약

유입지역·이동수단 현황

관광거점 유입인구는 2025년 이후 크게 증가했으며, 은평구 내부 이동 중심의 생활권형 이용 특성이 강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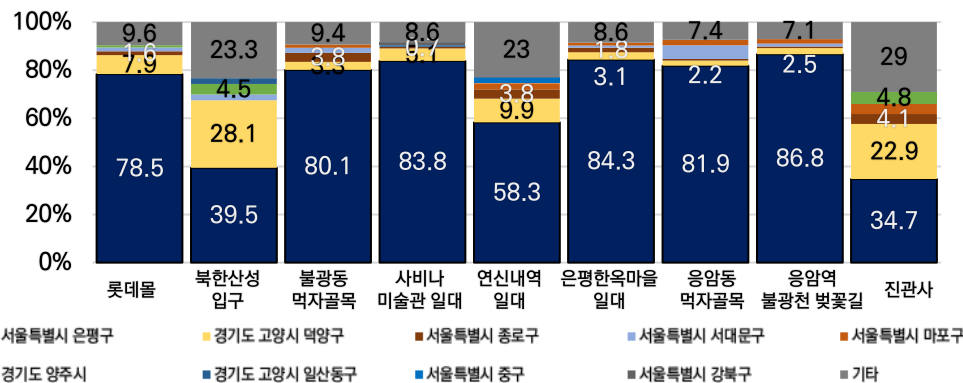
관광 목적 유입 인구 추이

관광거점 유입인구는 2023~2024년 월 30만~44만 명 수준에서 등락했으나, 2025년 이후 월 50만~62만 명 수준으로 급증



내부 이동을 포함한 유입지역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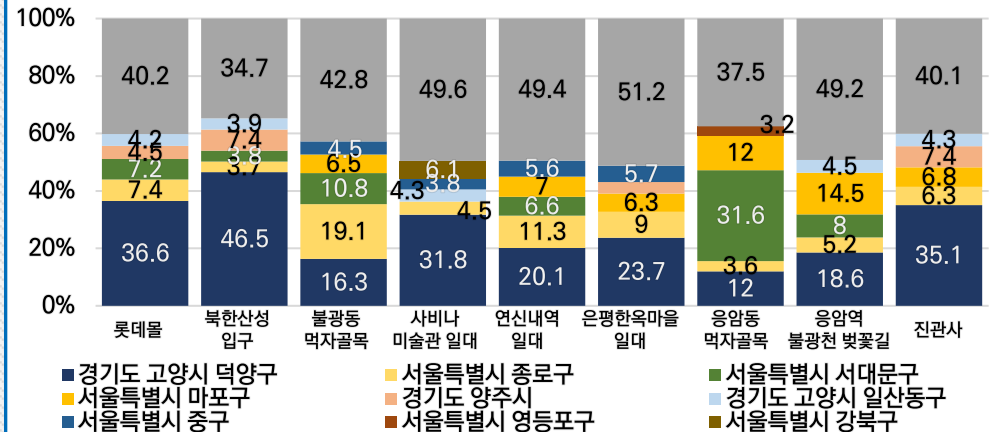
은평구 주요 관광거점은 내부 이동 비중이 높아 생활권형 이용 특성이 강하며, 북한산성·진관사는 외부 유입 비중이 높아 자연·종교 관광거점 성격이 확인됨



외부 유입은 고양시 덕양구 중심으로 형성되고, 자연·문화형 거점은 차량 기반 접근성이 높아 광역 연계 전략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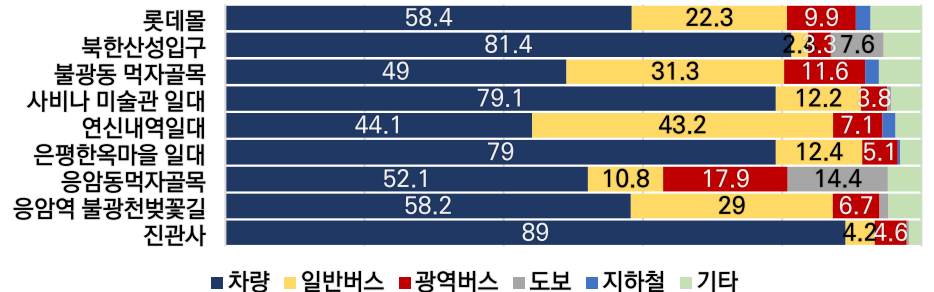
내부 이동 제외한 외부 유입지역 비중

은평구 외부 유입은 고양시 덕양구 중심으로 형성되며, 북한산성 입구·롯데몰·진관사는 서울 서북권과 경기 접경권을 연결하는 광역 유입 거점으로 나타남



내부 이동을 제외한 관광거점별 이동수단 비중

은평구 외부 방문객은 대부분 차량 기반으로 유입되며, 자연·문화형 거점은 자가용 의존도가 높아 주차·진입도로·거점 간 연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01 분석 결과 요약

카드소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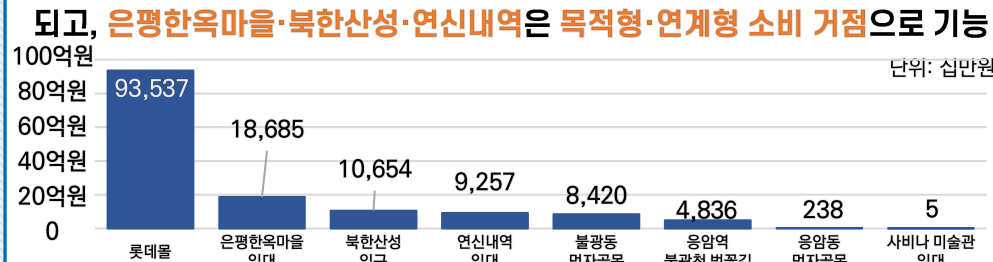
관광거점 카드소비는 2025년 하반기 이후 확대되며, 롯데몰 중심의 소비 집중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남

9개소 관광거점 카드 소비 추이



관광거점별 카드소비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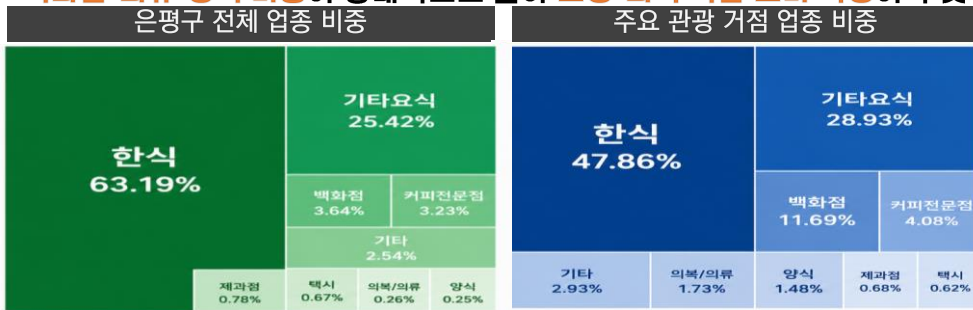
롯데몰이 전체 관광거점 카드소비의 64.2%를 차지하며 소비가 압도적으로 집중되고, 은평한옥마을·북한산성·연신내역은 목적형·연계형 소비 거점으로 기능



관광거점과 은평구 간 소비 업종 구조 비교

은평구 전체는 한식 중심 생활형 외식 소비 비중이 높은 반면, 주요 관광거점은

백화점·의류·양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쇼핑·외식 복합 소비 특성이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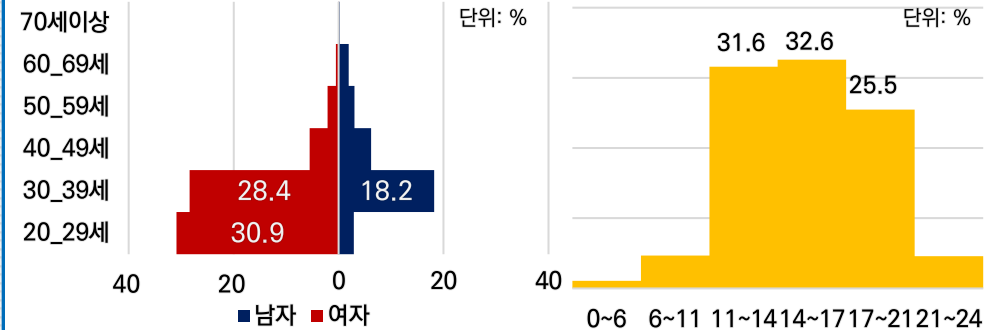


관광거점 소비는 20~30대 여성과 점심·저녁 시간대에 집중되며, 쇼핑·외식 중심의 복합 소비 특성이 확인됨

성연령별·시간대별 카드 소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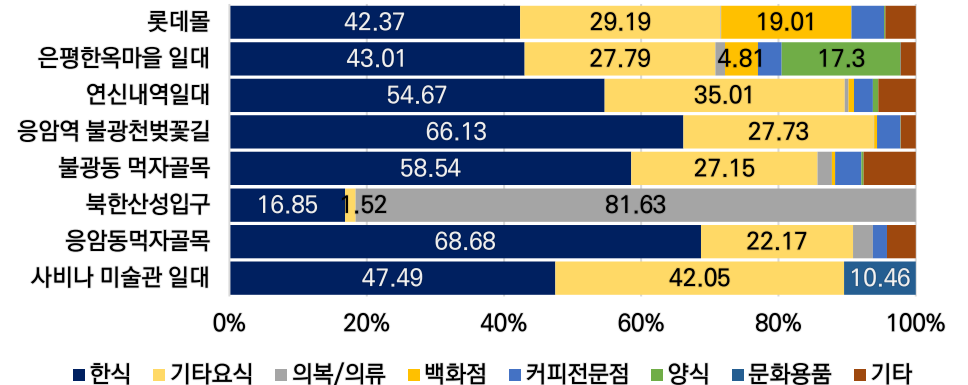
관광거점 전체 소비는 20~30대 여성 비중이 가장 높고,

점심·오후·저녁 시간대에 집중되어 식음·쇼핑 중심 소비 흐름이 뚜렷



관광거점별 소비 업종 비중

대부분의 거점에서 한식·기타요식 중심의 외식 소비가 공통적으로 높고, 은평한옥마을은 양식, 사비나 미술관은 문화용품형으로 거점별 소비 특성이 차별화



01 분석 결과 요약

외국인 카드소비 현황

외국인 소비는 롯데몰·은평한옥마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야외 거점은 가을 성수기 이후 감소하고 롯데몰은 겨울철에도 소비가 유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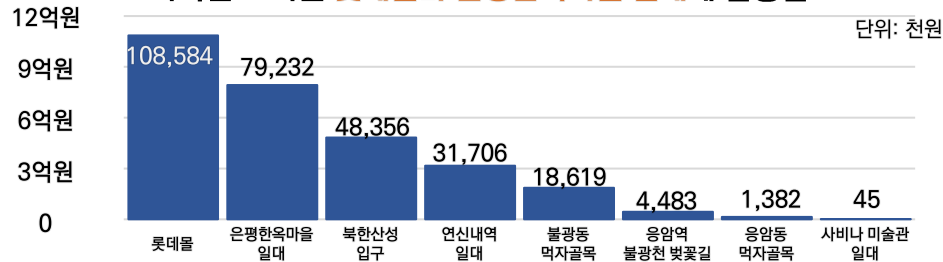
관광거점별 외국인 카드소비 추이

외국인 카드소비는 10~11월에 집중되고, 이후 겨울철에는 감소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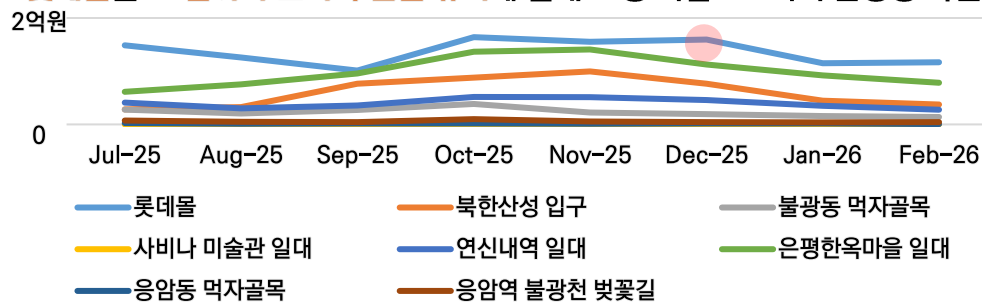
관광거점별 외국인 카드소비 규모

외국인 소비는 롯데몰과 은평한옥마을 일대에 집중됨



월별 외국인 카드소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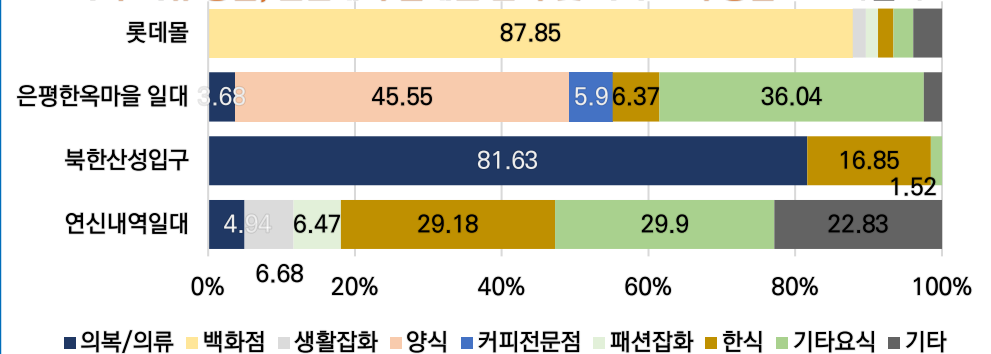
대부분의 야외·목적형 거점은 2025년 10~11월 소비 확대 이후 감소한 반면, 롯데몰은 12월까지 소비 수준을 유지해 실내 쇼핑 거점으로서의 안정성 확인



외국인 소비는 거점별 업종과 피크시간대가 달라, 쇼핑형·식음형·상권형 등 역할구분을 통한 코스 설계가 필요함

외국인 카드소비 상위 거점 업종 비중

외국인 소비는 거점별로 은평한옥마을은 식음 연계형, 북한산성 입구는 의복·의류 중심, 연신내역 일대는 한식 및 기타 요식 중심으로 차별화



외국인 카드소비 시간대 이용현황

외국인 소비는 거점별로 롯데몰·은평한옥마을은 주간~저녁 소비형, 먹자골목과 사비나 미술관은 저녁 소비형, 연신내역·불광천 벚꽃길은 점심 소비형으로 구분

관광거점명	이른 아침(0~6)	오전(6~11)	점심(11~14)	오후(14~17)	저녁(17~21)	심야(21~24)
롯데몰	0.1%	1.1%	24.2%	36.6%	34%	3.9%
은평한옥마을 일대	0%	5.7%	35.7%	34.7%	23.8%	0%
북한산성 입구	1.6%	7.2%	22.8%	24.3%	34.9%	9.3%
연신내역 일대	0%	1.8%	84.5%	8.2%	5.5%	0%
불광동 먹자골목	8.1%	3.5%	16.3%	16.4%	34.7%	21%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	0%	8.6%	47.9%	35.2%	8.3%	0%
응암동 먹자골목	3%	5.5%	24.3%	24.7%	33.5%	8.9%
사비나 미술관 일대	1.6%	7.4%	21%	18.2%	37.5%	14.2%

II. 분석 결과 요약 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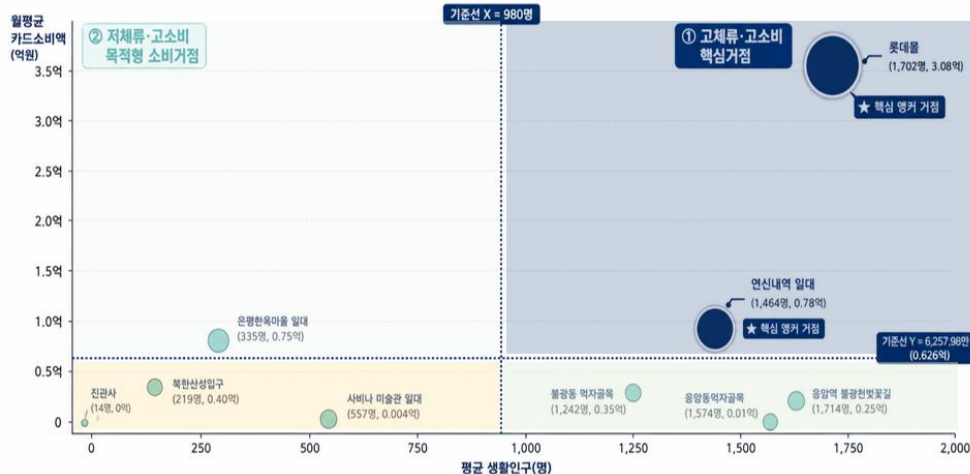
01 분석 결과 요약

복합 분석 요약

대표 관광코스 도출 프로세스

No	명칭	활용 데이터	목적
1	거점별 체류·소비 역량 진단	생활인구, 카드소비	핵심 앵커 거점과 보조·확장 거점 구분
2	거점 간 이동축 검증	수도권 생활이동 OD	실제 이동 방향, 연결 강도, 주요 연계축 확인
3	연계 가능 코스 구성	체류·소비 유형, OD 이동량	연속 가능한 관광코스 후보 구성
4	대표코스 선정 및 해석	이동량, 소비액, 구간 연결성, 관광 시나리오	데이터 기반 우선순위와 관광 이용 시나리오를 반영한 최종 코스 제안

거점별 체류·소비 역량 진단



① 고체류·고소비 핵심거점

롯데몰, 연신내역 일대

③ 보조·연계거점

진관사, 사비나 미술관 일대, 북한산성 입구

② 목적형 소비거점

온평한옥 마을 일대

④ 소비전환 필요거점

응암동 먹자골목, 불광동 먹자골목, 응암역 불광천 뱃꽃길

거점 간 이동축 검증



연계 가능 코스 구성

총 구간 이동량, 총 코스 흐름량, 최소 구간 이동량, 총 카드소비액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표 관광코스 후보 4개를 도출함

후보 1	후보 2	후보 3	후보 4
생활권 체류형 코스	이동량 중심 코스	관광 연계형 코스	소비 전환형 코스
불광동 먹자골목 → 연신내역 일대 → 롯데몰 → 북한산성 입구	롯데몰 → 북한산성 입구 → 불광동 먹자골목 → 연신내역 일대	온평한옥마을 일대 → 북한산성 입구 → 롯데몰 → 연신내역 일대	연신내역 일대 → 온평한옥마을 일대 → 북한산성 입구 → 롯데몰
※ 이동 연결성과 용입 규모를 고려한 동선		※ 자연·전통문화·상권을 연계한 코스	※ 도심 상권에서 체류·관광 후 소탕으로 전환
총 구간 이동량 49,393명	총 구간 이동량 28,219명	총 구간 이동량 43,903명	총 구간 이동량 14,610명
최소 구간 이동량 7,252명	최소 구간 이동량 1,166명	최소 구간 이동량 8,419명	최소 구간 이동량 1,053명
총 카드 소비액 5.78억	총 카드 소비액 3.4억	총 카드 소비액 7.48억	총 카드 소비액 9.28억

대표 관광코스는 최근 1년간 생활인구·카드소비·생활이동 데이터를 결합하여, 거점별 체류·소비·이동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출

II. 분석 결과 요약 및 제언

01 분석 결과 요약

복합 분석 요약

대표 코스 평가 지표

코드	평가 지표	평가 내용	가중치
A	총 구간 이동량	코스를 구성하는 각 구간의 이동량을 합산한 값으로, 코스 전체의 이동 연결성과 실제 이동 수요 규모를 판단	0.35
B	총 코스 흐름량	시작 거점에서 발생하는 전체 이동 흐름 규모로, 코스 출발지의 유입 잠재력과 관광객 흡수 가능성을 판단	0.10
C	최소 구간 이동량	코스 내 구간 중 가장 적은 이동량으로, 특정 구간에서 이동 흐름이 단절될 가능성과 코스 지속성을 판단	0.25
D	총 카드소비액	코스 구성 거점의 카드소비액 합계로, 관광코스 운영 시 소비 유발 가능성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판단	0.30

※본 가중치는 선행연구 및 분석 목적을 바탕으로 설정하였으며, 관광코스 평가의 객관성과 분석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석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최종 적용 기준을 확정함.

가중치 적용 기준

$$\text{종합점수} = A' \times 0.35 + B' \times 0.10 + C' \times 0.25 + D' \times 0.30$$

관광 코스 후보 평가 적용 결과

No	대표 관광코스 경로 후보	A	B	C	D	A'	B'	C'	D'	점수
1	불광동 먹자골목 → 연신내역 일대 → 롯데몰 → 북한산성 입구	49,393	134,866	7,252	5.78억	100	54.2	84.2	40.4	73.6
2	롯데몰 → 북한산성 입구 → 불광동 먹자골목 → 연신내역 일대	28,219	218,799	1,166	3.4억	39.1	100	1.5	0	24.1
3	은평한옥마을 일대 → 북한산성 입구 → 롯데몰 → 연신내역 일대	43,903	53,124	8,419	7.48억	84.2	9.7	100	69.3	76.2
4	연신내역 일대 → 은평한옥마을 일대 → 북한산성 입구 → 롯데몰	14,610	187,274	1,053	9.28억	0	82.8	0	100	38.3

※A~D는 원본값, A'~D'는 최대-최소 스케일링(Min-Max Scaling)을 적용한 표준화 점수임.

**은평한옥마을 일대 → 북한산성 입구 → 롯데몰 → 연신내역 일대 코스가
76.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대표 관광코스로 선정**

II. 분석 결과 요약 및 제언

01 분석 결과 요약

복합 분석 요약

대표코스 흐름도



대표코스 선정

후보 1

생활권 체류형 코스



불광동 먹자골목 →
연신내역 일대 →
롯데몰 →
북한산성 입구

후보 2

이동량 중심 코스



롯데몰 →
북한산성 입구 →
불광동 먹자골목 →
연신내역 일대

※ 이동 연결성과 유입 규모를 고려한 동선

후보 3

관광 연계형 코스



은평한옥마을 일대 →
북한산성 입구 →
롯데몰 →
연신내역 일대

※ 자연·전통문화·상권을 연계한 코스

후보 4

소비 전환형 코스



연신내역 일대 →
은평한옥마을 일대 →
북한산성 입구 →
롯데몰

※ 도입 상권에서 체류·관광 후 쇼핑으로 전환

대표코스 선정 사유

은평한옥마을 → 북한산성입구 → 롯데몰 → 연신내역일대

- ☑ 롯데몰과 연신내역 일대는 체류와 소비가 모두 높은 핵심 앵커 거점으로 확인되어 대표코스 내 소비·상권 연결의 중심축으로 반영함
- ☑ 은평한옥마을 일대는 전통문화 방문 이후 식음·카페 소비가 발생하는 목적형 소비거점이며, 북한산성 입구는 자연관광 수요를 보유한 연계 거점으로 나타나 전통문화·자연관광 흐름을 구성할 수 있음
- ☑ 해당 코스는 총 구간 이동량과 총 코스 흐름량이 가장 높은 후보는 아니나, 최소 구간 이동량이 가장 높아 구간 단절 위험이 낮고, 총 카드소비액도 7.48억 원으로 소비 유발 가능성이 충분함.

02 종합 제언

➤ 종합 제언

1) 생활권형 관광거점과 목적형 관광거점의 역할 분리

- 은평구 관광거점은 연신내역 일대·롯데몰·불광동 먹자골목·응암역 불광천 벚꽃길 등 생활권형 체류·소비 거점과, 북한산성 입구·은평한옥마을·진관사 등 자연·전통문화·종교형 목적 방문 거점으로 구분됨.
- 따라서 모든 거점을 동일한 관광지로 육성하기보다, 생활권형 거점은 식음·쇼핑·야간 상권 중심으로, 목적형 거점은 주말·점심~오후 시간대 자연·문화 방문 중심으로 역할을 구분하여 관광 전략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2) 자연·문화 관광과 상권 소비를 연결하는 코스형 관광 강화

- 북한산성 입구와 은평한옥마을은 주말 및 점심~오후 체류 특성이 강하지만, 단독 소비 규모는 제한적으로 나타남. 반면 롯데몰, 연신내역 일대는 체류와 소비가 함께 발생하는 핵심 소비 거점으로 확인됨.
- 이에 따라 은평한옥마을과 북한산성 입구를 방문한 관광객이 롯데몰과 연신내역 일대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자연관광-쇼핑·휴식-상권·식음으로 이어지는 하루형 관광코스를 구성하는 것이 적합함
- 다만 진관사, 북한산성 입구 등 자연·종교형 거점은 생활인구와 카드소비 규모가 낮게 포착될 수 있으나, 이는 관광 가치가 낮다는 의미가 아니라 체류·소비가 데이터상 제한적으로 포착되는 거점 특성에 따른 결과임. 해당 거점은 은평구의 자연·전통·종교 관광 정체성을 보완하는 상징 거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3) 고양시 덕양구 등 외부 유입권역 대상 광역 연계 전략 필요

- 은평구 내부 이동을 제외하면 고양시 덕양구가 대부분 관광거점의 주요 외부 유입권역으로 나타나, 은평구 관광은 서울 내부 수요뿐 아니라 경기 북서부 생활·관광권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
- 향후 홍보·안내·교통 연계 전략은 은평구 내부 주민뿐 아니라 고양시 덕양구, 양주시, 서울 서북권 방문객을 대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북한산성 입구·진관사·은평한옥마을은 경기 북서부권 자연·문화 방문 수요를 흡수하는 광역형 관광거점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임

02 종합 제언

➤ 종합 제언

4) 차량 중심 접근 구조에 대한 교통·보행 연계 개선

- 외부 유입 기준 이동수단 분석 결과, 북한산성 입구·진관사·은평한옥마을 등 자연·문화형 거점은 차량 접근 비중이 높아 주말 혼잡, 주차 수요, 진입도로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구파발역·롯데몰·은평한옥마을·북한산성 입구를 연결하는 순환형 셔틀, 안내 동선, 보행 연결성 개선, 주차 분산 운영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는 차량 방문객의 체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거점 간 소비 이동을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5) 카드소비 기반 거점별 특화 콘텐츠 강화

- 롯데몰은 쇼핑·외식·실내 체류, 연신내역 일대와 불광동 먹자골목은 저녁 식음·상권, 은평한옥마을은 주간 식음·전통문화,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은 산책 후 식음·카페 소비에 강점이 있음. 각 거점의 소비 피크 시간대와 핵심 소비층을 반영하여, 은평한옥마을은 점심·오후형 전통문화·카페 코스, 연신내역 일대·불광동 먹자골목은 저녁 식음 코스, 불광천 벚꽃길은 산책·카페·생활여가 코스로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6) 외국인 소비 거점은 롯데몰·은평한옥마을 중심으로 우선 육성

- 외국인 카드소비는 롯데몰과 은평한옥마을 일대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롯데몰은 백화점 중심 쇼핑형, 은평한옥마을은 전통문화·식음 연계형 소비 특성이 확인됨.
- 외국인 관광 전략은 단순 방문 유도보다 소비가 포착되는 거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롯데몰-은평한옥마을-북한산성 입구를 연결하는 쇼핑·전통문화·자연관광 연계 코스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CHAPTER

III



은평구 관광객 방문 및 소비패턴 분석



분석 결과

- 01. 인구 분석
- 02. 카드소비 분석
- 03. 복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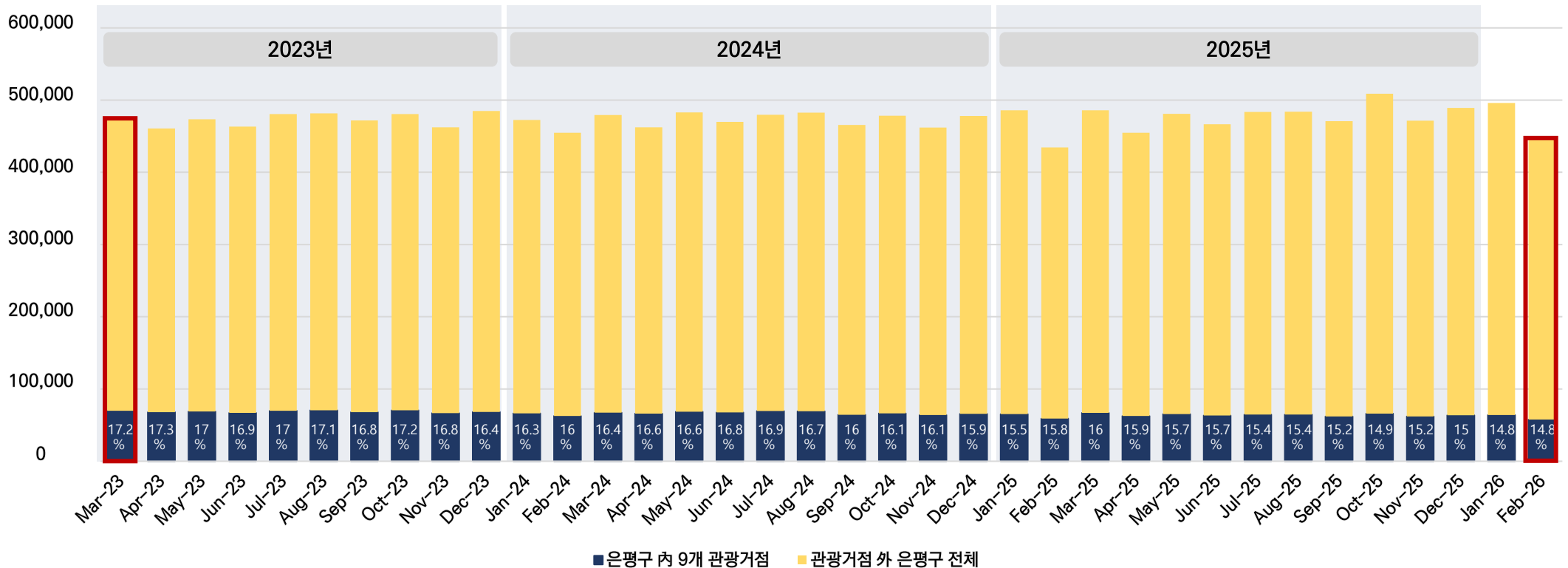
01 인구 분석

▶ 은평구 전체 대비 주요 관광거점 생활인구 비중 추이

은평구 전체 생활인구는 월평균 약 39만~44만 명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반면, 9개 관광거점 생활인구는 약 5.8만~7.0만 명 수준으로 2023년 대비 2025년 이후 다소 낮아지는 흐름이 확인됨

- 생활인구 관점으로 보면 2023년에는 9개 관광거점 비중이 대체로 16%대 후반을 유지했으나, 2024년 하반기 이후에는 14%대 후반으로 낮아지는 흐름이 확인됨. 이는 은평구 전체 체류 규모가 유지되는 가운데, 주요 관광거점에서의 체류 집중도는 다소 약화되었음을 시사함
- 다만 2025년 10월 이후 일부 월에는 관광거점 비중이 다시 상승하는 흐름도 나타나, 특정 시기·이벤트·계절 요인에 따라 관광거점 체류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은평구 전체 생활인구 대비 9개 관광거점 생활인구 비중



Ⅲ.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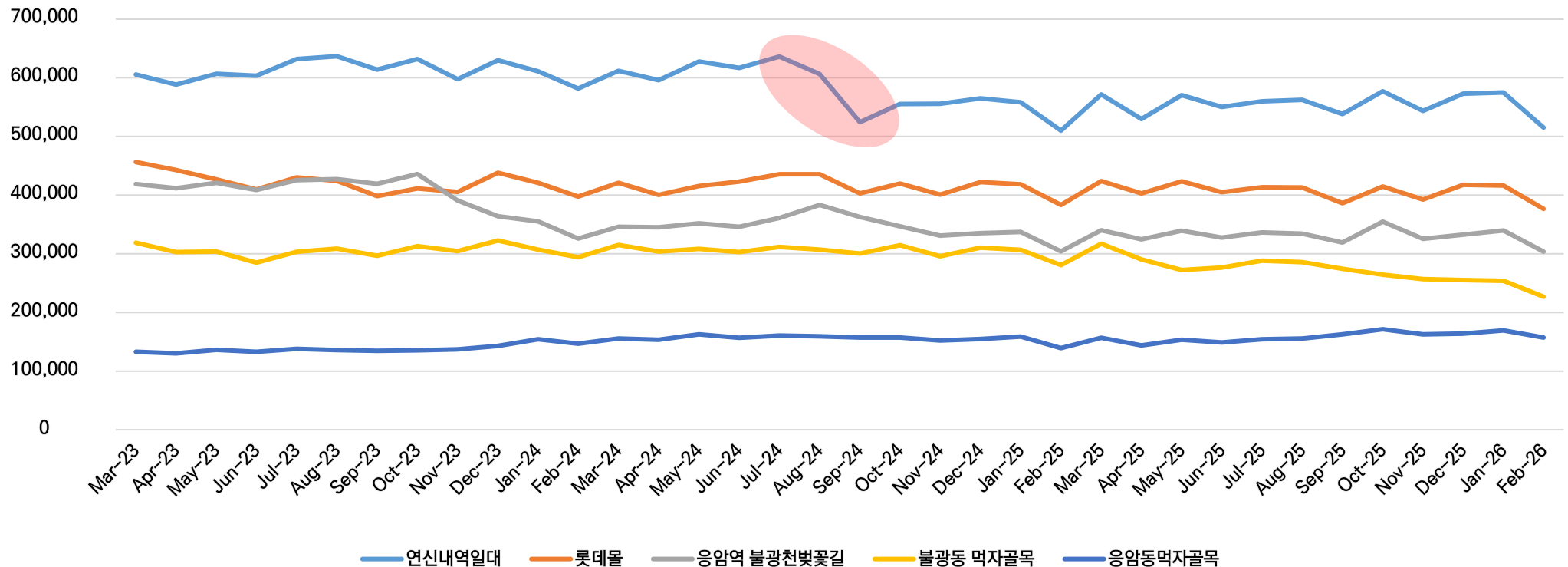
01 인구 분석

» 생활인구 상위 5개 관광거점 월별 생활인구 추이

상위 5개 관광거점의 생활인구 규모는 전 기간 동안 연신내역 일대가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롯데몰,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 불광동 먹자골목, 응암동 먹자골목 순으로 나타남

- 연신내역 일대는 전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생활인구를 유지함. 월별로 약 50만~65만 명대 수준이며, 다른 거점과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편임. 다만 2024년 하반기 이후에는 2023년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고, 2025년에도 55만 명 전후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임.
- 롯데몰은 연신내역 일대 다음으로 생활인구 규모가 큰 거점으로, 쇼핑·외식·실내 체류가 결합된 복합소비형 거점 특성이 확인됨. 월별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안정적인 방문·체류 기반을 가진 것으로 판단됨

최근 3개년 상위 5개 관광거점 월별 생활인구 합계 추이



Ⅲ.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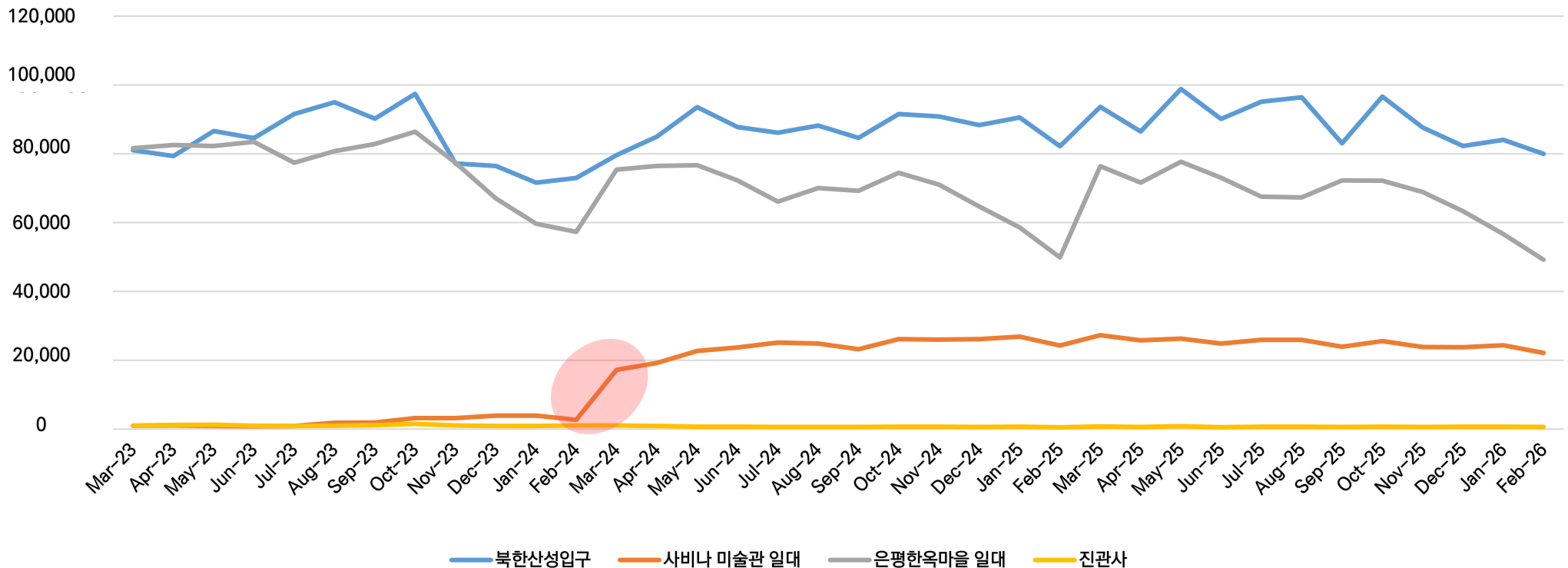
01 인구 분석

» 생활인구 하위 4개 관광거점 월별 생활인구 추이

하위 4개 거점 중에서는 북한산성 입구가 전 기간 가장 높은 생활인구 규모를 보이고, 그 다음으로 은평한옥마을 일대가 뒤따르고 있음. 사비나 미술관 일대는 2024년 3월 이후 급격히 증가한 뒤 일정 수준을 유지하며, 진관사는 전 기간 생활인구 규모가 가장 낮게 나타남

- **북한산성 입구**는 하위 4개 거점 중 가장 높은 생활인구를 유지함. 월별로 대체로 8만~10만 명 수준에서 움직이며, 2025년 5월에는 약 9.9만 명까지 상승함
- **사비나 미술관 일대**는 2023년에는 생활인구 규모가 매우 낮았으나, 2024년 3월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약 1.7만~2.7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이는 데이터 범위, 거점 격자 설정, 주변 시설 변화, 또는 집계 기준 변화의 영향일 수 있음. 따라서 “관광 수요가 급증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2024년 이후 데이터상 체류 포착이 증가한 문화형 보조 거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함

최근 3개년 하위 4개 관광거점 월별 생활인구 합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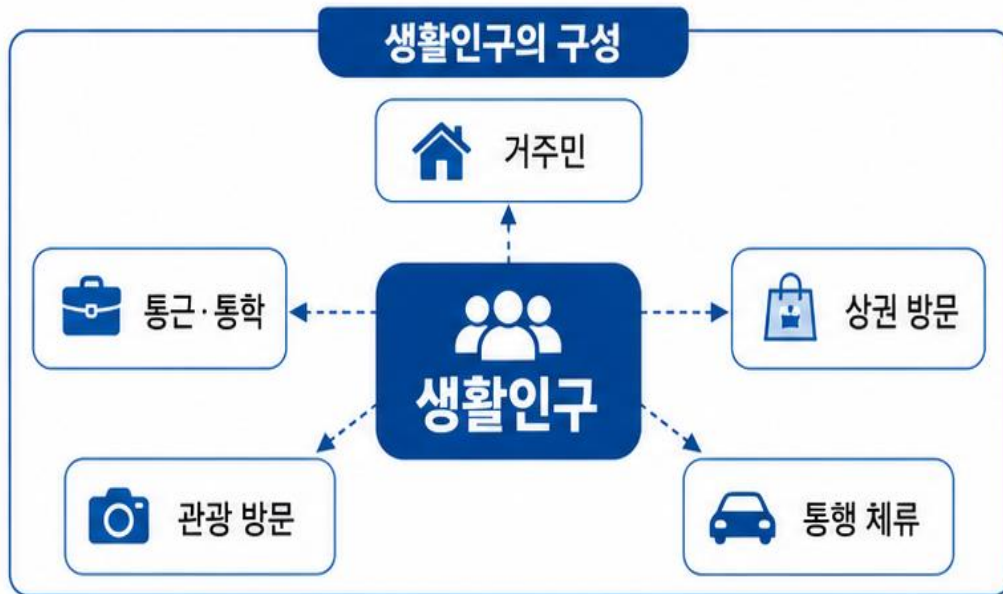


01 인구 분석

» 생활인구의 복합 체류 특성과 정주인구 보정 필요성

생활인구는 특정 시점에 해당 지역에 체류한 인구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이나, 거주민·통근·생활권 체류·상권 방문·관광 방문이 함께 포함됨.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주민등록인구를 정주 기준선으로 설정하고, 이를 차감한 정주 대비 초과체류인구를 활용하여 관광거점별 외부 유입·방문 가능성을 보완적으로 판단하였음

생활인구 구성 요소



생활인구 단독 활용의 한계

- 앞서 분석 데이터 정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생활인구는 관광객만을 의미하지 않고 거주민, 통근·통학자, 상권 이용자, 단순 방문자 등을 포함하는 복합 체류 지표임
- 거주민, 통근·통학, 상권 방문, 관광 방문, 단순 통행 체류가 함께 포함되어 생활권 성격이 강한 지역은 과대 해석이 가능하게 됨
- 관광거점별 셀 범위에 주거지·상권·도로가 포함되는 정도에 따라 생활인구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생활인구 총량만으로 관광 방문성을 직접 판단하기 어렵고, **정주 인구를 고려한 보정 지표가 필요함**

» 보정지표 산식

$$\text{생활인구} - \text{주민등록인구} = \text{정주 대비 초과 체류 인구}$$

Ⅲ. 분석 결과

01 인구 분석

» 생활인구·주민등록인구 정의 및 분석 지표

생활인구는 특정 시점에 실제 해당 지역에 체류한 인구를 보여주는 동적 지표이며, 주민등록인구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고정 수요를 나타내는 기준선임. 다만 생활인구에는 거주민, 통근·통학, 상권 방문, 단순 통행, 관광 방문이 함께 포함되므로 생활인구만으로 관광객 규모를 직접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본 분석에서는 생활인구와 주민등록인구를 결합하여 **정주 인구 대비 초과체류인구와 체류배율**을 산출하고, 관광거점별 외부 유입·방문 가능성을 보완적으로 판단하였음. 또한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 중 관광·쇼핑·기타 목적 이동을 선별하여 관광거점 간 이동 흐름을 분석하고, 생활이동 수단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여 외부 유입 방문객의 접근 수단 특성을 파악하였음
- 이를 통해 단순 체류 규모뿐 아니라 **정주 대비 체류 강도, 관광거점 간 이동축, 외부 유입권역, 이동수단**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은평구 관광거점의 역할과 코스 연계 가능성을 도출하였음

지표	정의	활용 목적
생활인구	특정 일자·시간대에 해당 250M 격자에 체류한 인구	관광거점별 실제 체류 규모 및 시간대별 체류 특성 파악
주민등록인구	행정동 기준 거주 인구	지역 내 고정 수요 및 정주 기준선 설정
셀별 추정 주민등록인구	행정동 주민등록인구를 250M 셀 단위로 배분한 값	관광거점 격자 단위의 정주 기준선 설정
초과체류인구	생활인구 - 셀별 추정 주민등록인구	정주 인구 대비 외부 유입·방문 가능성 파악
정주 대비 체류배율	생활인구 / 셀별 추정 주민등록인구	관광거점별 상대적 체류 강도 비교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	수도권 내 출발지·도착지 기반 이동 데이터 중 관광·쇼핑·기타 목적 이동을 선별한 데이터	관광거점 간 이동량, 주요 이동축, 코스 연결성 분석
수도권 생활이동 수단 데이터	생활이동 데이터에 이동수단 정보를 결합한 데이터	관광거점별 외부 유입 방문객의 차량·버스·도보 등 접근수단 특성 분석
외부 유입지역	출발 격자의 시도·시군구 정보를 기준으로 구분한 방문 출발지역	은평구 내부·외부 유입 비중 및 핵심 외부 유입권역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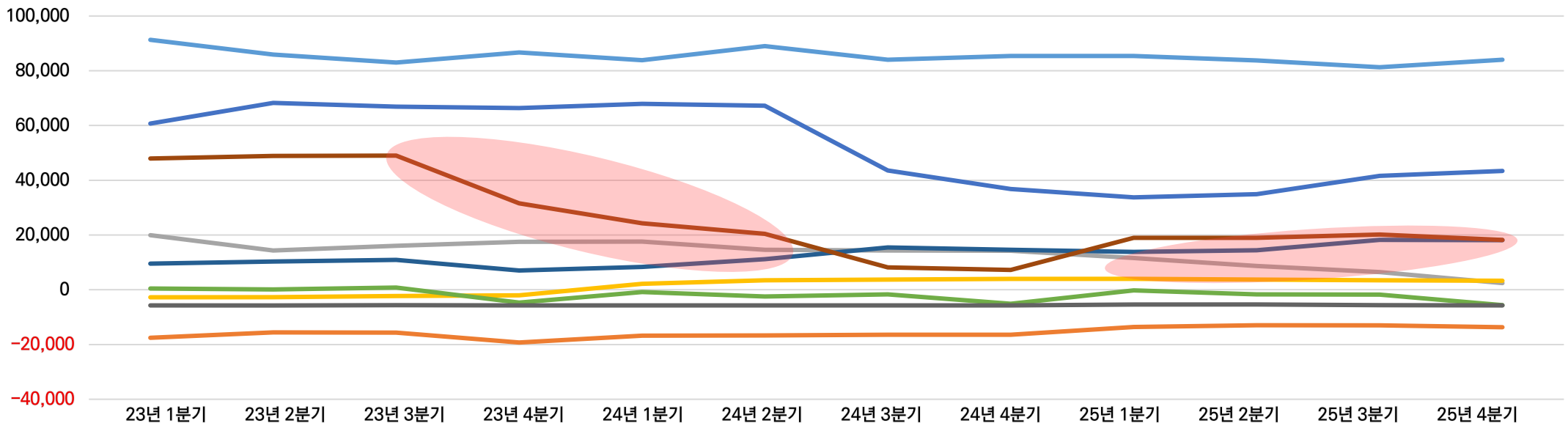
01 인구 분석

▶▶ 관광거점별 정주 대비 월평균 초과체류인구 추이

분기 기준 월평균 초과체류인구를 분석한 결과, 롯데몰은 전 기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정주인구 대비 외부 체류·방문성이 가장 강한 핵심 복합소비 거점으로 나타남. 연신내역 일대는 2023년에는 높은 초과체류 규모를 보였으나 2024년 이후 감소해, 상권 체류 유도 및 소비 연계 강화가 필요한 거점으로 판단됨

-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은 2023년 높은 초과체류를 보였으나 2024년 이후 급감했고, 응암동 먹자골목은 2025년 들어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남. 이는 불광천 산책형 체류와 주변 식음 상권 간 이용 구조가 변화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줌
- 북한산성 입구·은평한옥마을·진관사는 정주 대비 초과체류인구 기준에서는 낮게 나타나지만, 자연·전통문화·종교형 거점의 특성상 상시 체류보다 특정 시간대·주말 목적 방문 성격이 강한 거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분기별 관광거점 초과체류인구 추이



※ 양수는 정주 기준선 대비 체류가 많은 지역, 음수는 정주 인구 대비 생활인구가 낮게 나타난 지역을 의미하며, 관광성 판단을 위한 보조 지표로 활용

— 롯데몰 — 북한산성입구 — 불광동 먹자골목 — 사비나 미술관 일대 — 연신내역 일대 — 은평한옥마을 일대 — 응암동 먹자골목 — 응암역 불광천벚꽃길 — 진관사

01 인구 분석



» 시간대별 생활인구 체류 특성

시간대별 생활인구 분석 결과, 은평구 관광거점은 주간형 관광거점, 저녁 상권형 거점, 생활여가형 거점으로 구분됨

- 롯데몰·북한산성 입구·은평한옥마을·진관사는 점심~오후 시간대 체류 비중이 높아, 쇼핑·자연·전통문화·종교 방문 수요가 낮 시간대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연신내역 일대와 불광동·응암동 먹자골목은 오후~저녁 시간대 체류가 높아 식음·상권형 거점 특성이 확인되며,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은 이른 아침과 심야 체류 비중도 높게 나타나 산책·운동·생활권 체류가 결합된 생활여가형 관광거점으로 해석됨

관광거점·시간대별 생활인구 현황

관광거점명	이른 아침(0~6)	오전(6~11)	점심(11~14)	오후(14~17)	저녁(17~21)	심야(21~24)
롯데몰	1,403 (13.5%)	1,538 (14.8%)	1,915 (18.4%)	2,085 (20.0%)	1,927 (18.5%)	1,543 (14.8%)
북한산성 입구	170 (12.7%)	189 (14.0%)	292 (21.7%)	301 (22.4%)	222 (16.5%)	171 (12.7%)
불광동 먹자골목	1,091 (14.4%)	1,154 (15.2%)	1,392 (18.3%)	1,475 (19.4%)	1,319 (17.4%)	1,154 (15.2%)
사비나 미술관 일대	588 (17.7%)	578 (17.4%)	547 (16.5%)	525 (15.8%)	520 (15.7%)	562 (16.9%)
연신내역 일대	1,309 (14.4%)	1,341 (14.8%)	1,542 (17.0%)	1,620 (17.8%)	1,714 (18.9%)	1,551 (17.1%)
은평한옥마을 일대	296 (14.6%)	330 (16.2%)	387 (19.0%)	399 (19.6%)	324 (15.9%)	299 (14.7%)
응암동 먹자골목	1,195 (15.9%)	1,199 (16.0%)	1,269 (17.0%)	1,292 (17.3%)	1,287 (17.2%)	1,235 (16.5%)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	1,819 (17.4%)	1,720 (16.5%)	1,667 (15.9%)	1,649 (15.8%)	1,781 (17.0%)	1,816 (17.4%)
진관사	9 (10.4%)	12 (14.5%)	21 (24.9%)	22 (25.9%)	11 (12.9%)	10 (11.2%)

01 인구 분석

▶ 주말/평일 체류 강화 분석

주말/평일 배율 분석 결과, 북한산성 입구·진관사·은평한옥마을은 주말 관광성이 강한 거점으로, 연신내역 일대·불광동 먹자골목은 평일과 주말 모두 안정적으로 이용되는 상시 생활상권형 거점으로 구분됨

- 주말/평일 체류 배율을 분석한 결과, 은평구 주요 관광거점은 거점 성격에 따라 주말 강화 패턴이 뚜렷하게 구분되었음. **진관사와 북한산성 입구는 점심~오후 시간대 주말 체류 배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자연·종교·등산형 관광거점**으로 해석되며, 롯데몰과 은평한옥마을 일대는 점심~오후 배율이 상승해 주말 쇼핑·전통문화·식음 연계형 거점 특성이 확인됨.
- 반면 **연신내역 일대와 불광동 먹자골목**은 전 시간대 주말/평일 배율 차이가 크지 않아 특정 주말 관광 수요보다는 **평일과 주말 모두 이용되는 상시 생활상권형 거점**으로 판단됨.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과 응암동 먹자골목은 주말 오전~오후 또는 점심 시간대 배율이 높아 산책·외식·생활여가 수요가 결합된 생활여가형 거점으로 볼 수 있음

관광거점별 주말/평일 시간대 배율 현황

관광거점명	이른 아침(0~6)	오전(6~11)	점심(11~14)	오후(14~17)	저녁(17~21)	심야(21~24)
롯데몰	1.02	1.08	1.24	1.22	1.08	1.02
북한산성 입구	1.06	1.29	1.44	1.63	1.37	1.07
불광동 먹자골목	1.03	1.05	1.1	1.13	1.05	1.02
사비나 미술관 일대	1.02	1.06	0.98	0.98	1.01	1.03
연신내역 일대	1.07	1.02	1.05	1.05	1.05	1.05
은평한옥마을 일대	0.95	0.96	1.12	1.18	1.09	1.02
응암동 먹자골목	1.06	1.14	1.26	1.16	1.08	1.05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	1.03	1.14	1.24	1.21	1.09	1.03
진관사	1.04	1.27	1.72	1.76	1.14	1.05

Ⅲ.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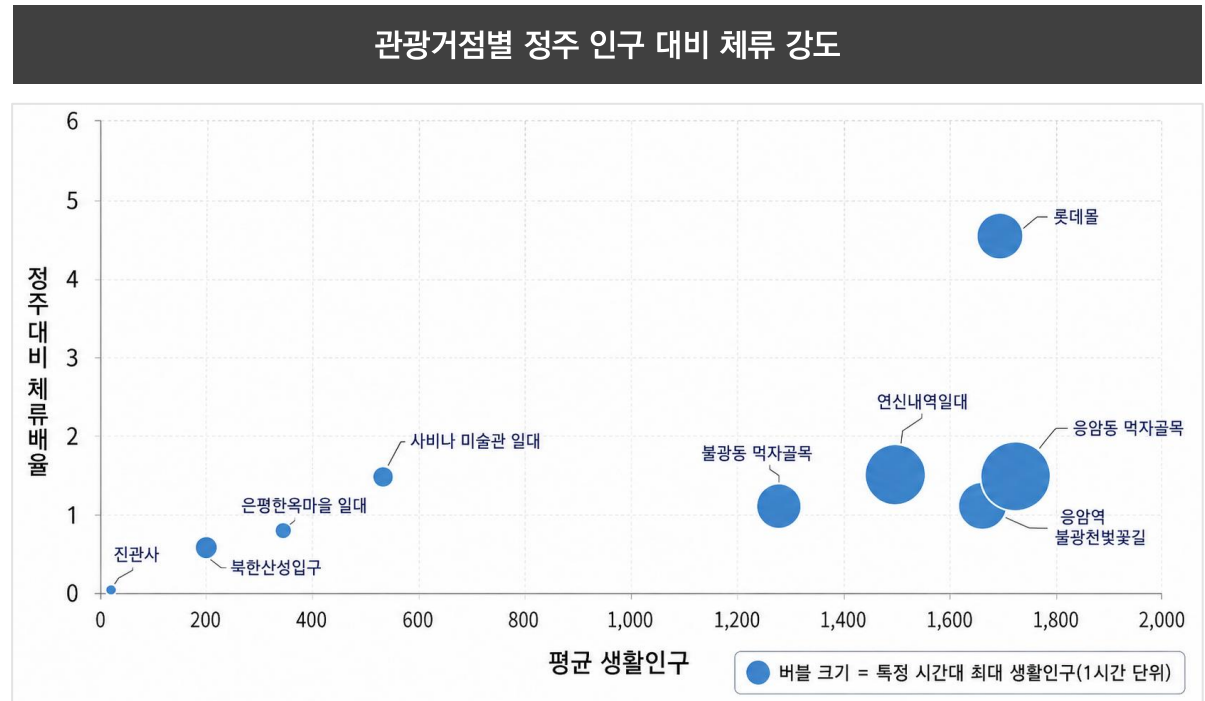
01 인구 분석

» 생활인구와 정주인구 보정 기반 관광거점 체류 특성

관광거점 주변 정주인구 대비 체류 강도를 분석한 결과, 롯데몰은 평균 생활인구와 정주대비 체류배율이 모두 높아 가장 뚜렷한 외부 체류·방문형 거점으로 나타남. 평균 생활인구는 1,702명, 정주대비 체류배율은 4.61배로, 다른 거점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체류 강도를 보임

- 롯데몰은 평균 생활인구와 정주대비 체류배율이 모두 높고, 버블 크기도 커서 특정 시간대 최대 생활인구 역시 높은 거점임. 이는 단순한 지역 생활권 체류가 아니라, **쇼핑·외식·실내 체류 목적의 외부 방문이 강하게 발생하는 핵심 체류·소비 거점**으로 볼 수 있음
- 연신내역 일대, 응암동 먹자골목,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 불광동 먹자골목은 평균 생활인구가 높고 최대 생활인구도 크게 나타남. 하지만 체류배율은 롯데몰보다 낮아, 순수 관광형이라기보다 **지역 주민·생활권 방문·상권 이용이 함께 반영된 상시 생활권형 체류 거점**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됨
- 은평한옥마을 일대, 북한산성 입구, 진관사는 평균 생활인구와 정주대비 체류배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다만 이들 거점은 주말·점심·오후 시간대 체류 강화가 확인되는 자연·전통문화·종교형 거점이므로, 생활인구 총량만으로 관광성을 낮게 판단하기보다는 **주말형·목적형 방문 거점**으로 **보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함

관광거점명	평균생활인구	정주대비 체류배율	최대생활인구
롯데몰	1,702	4.61	10,943
연신내역 일대	1,464	1.52	10,956
사비나 미술관 일대	557	1.51	1,723
응암동 먹자골목	1,574	1.47	13,059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	1,714	1.38	11,963
불광동 먹자골목	1,242	1.21	9,932
은평한옥마을 일대	335	0.91	3,558
북한산성 입구	219	0.60	5,925
진관사	14	0.04	707



Ⅲ.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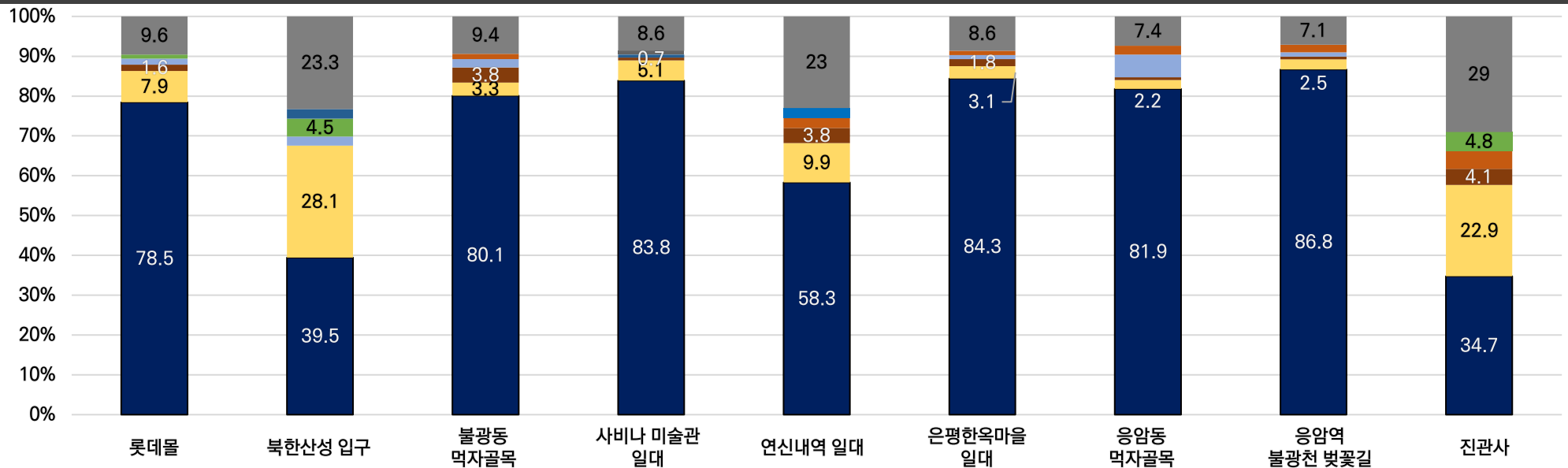
01 인구 분석

▶ 은평구 내부 이동을 포함한 관광거점별 유입지역 분석

9개 관광거점 모두 은평구 내부 이동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 은평한옥마을 일대, 사비나 미술관 일대, 응암동·불광동 먹자골목은 내부 이동 비중이 80% 이상으로 확인됨. 이는 해당 거점들이 외부 관광객 전용 목적지라기보다 지역 주민의 산책·식사·쇼핑·여가 수요와 결합된 생활밀착형 관광거점임을 시사함

- 북한산성 입구와 진관사는 은평구 내부 이동 비중이 각각 39.5%, 34.7%로 다른 거점 대비 낮고, 고양시 덕양구 및 기타 외부 지역 비중이 높게 나타남. 이는 두 거점이 은평구 주민 생활권 수요뿐 아니라 인접 경기 북서부 및 서울 타 권역의 자연·종교 관광 수요와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함
- 연신내역 일대는 은평구 내부 이동 비중이 58.3%로 나타나면서도, 고양시 덕양구 등 외부 지역에서의 유입이 비교적 활발하게 확인됨. 이는 연신내역 일대가 지역 상권 이용과 인접 지역 방문 수요가 함께 나타나는 생활권·상권형 거점임을 보여줌
- 불광동 먹자골목, 응암동 먹자골목,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은 지역 주민의 상권 이용, 산책, 식사, 생활소비와 밀접하게 연결된 생활권형 거점으로 판단됨

은평구 내부 이동을 포함한 관광거점별 유입지역 비중



■ 서울특별시 은평구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 ■ 경기도 양주시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 서울특별시 중구 ■ 서울특별시 강북구 ■ 기타

Ⅲ.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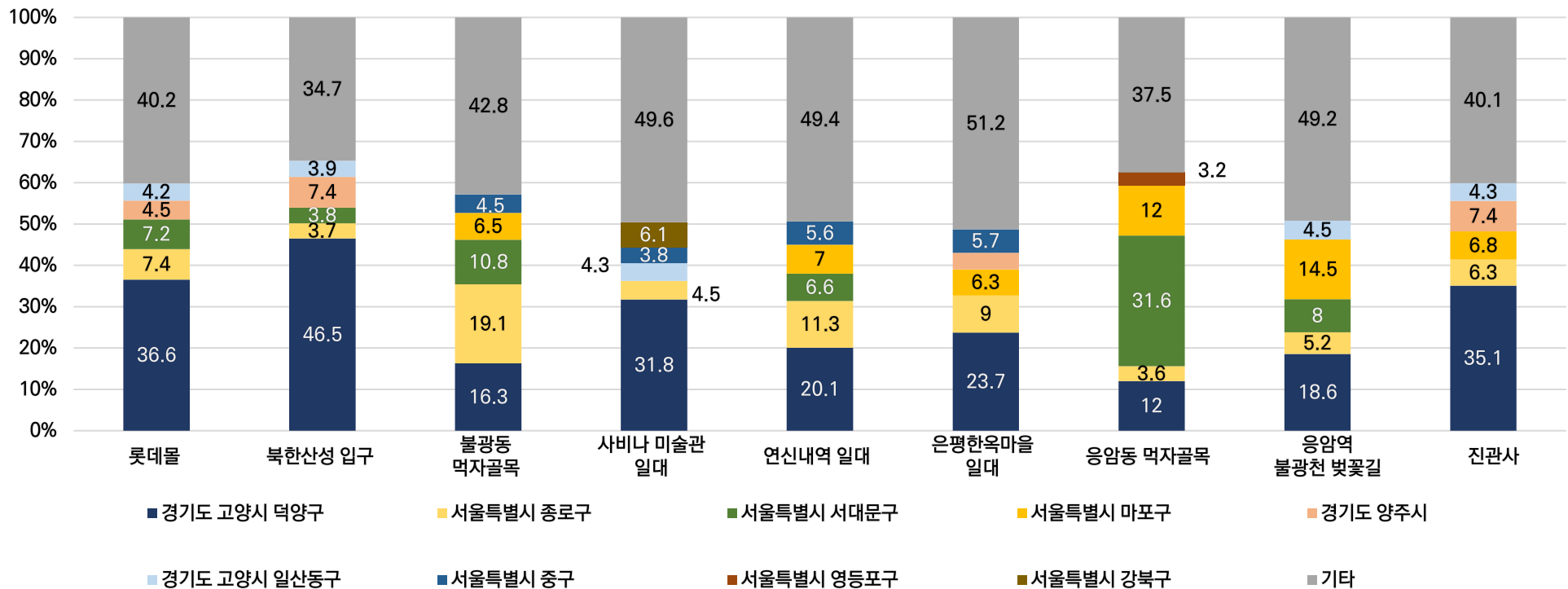
01 인구 분석

▶ 은평구 제외 기준 관광거점별 외부 유입지역 분석

다수 거점에서 고양시 덕양구가 주요 외부 유입권역으로 나타남. 이는 은평구 주요 관광거점이 행정구역상 서울에 위치하지만, 실제 외부 유입권역 측면에서는 고양시 덕양구와 강하게 연결된 서울 서북권·경기 접경형 관광권에 속함을 시사함

- **북한산성 입구**는 은평구 제외 기준 **고양시 덕양구 유입 비중이 46.5%**로 가장 높고, 양주시 등 경기 북부권 유입도 함께 확인된다. 이는 북한산성 입구가 은평구 내부 생활권을 넘어 경기 북서부 및 서울 도심권 방문객이 유입되는 광역 자연관광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줌
- **롯데몰**은 은평구 제외 기준에서도 **고양시 덕양구 유입 비중이 36.6%**로 가장 높고, **종로구·서대문구 등 서울 도심·서북권 유입도** 함께 확인된다. 이는 롯데몰이 은평구 내부 상권을 넘어 인접 경기권과 서울 서북권 방문객을 흡수하는 광역 쇼핑·외식 거점임을 시사함
- **은평한옥마을 일대**는 고양시 덕양구 유입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종로구·중구·서대문구·마포구** 등 서울 주요 권역과 기타 지역 비중도 함께 확인된다. 이는 은평한옥마을이 인접 생활권뿐 아니라 전통문화·식음 목적의 분산형 외부 방문 수요를 흡수하는 거점임을 시사함

은평구 제외 기준 관광거점별 외부 유입지역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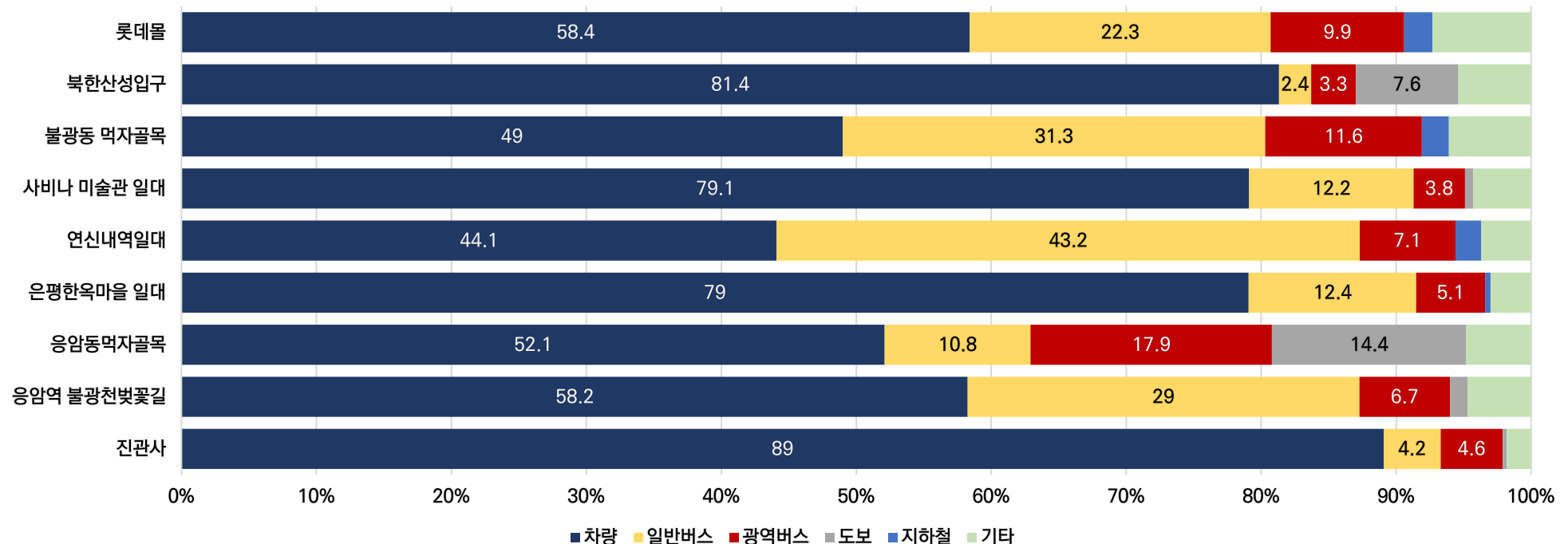
01 인구 분석

» 은평구 제외 기준 관광거점별 이동수단 분석

은평구 내부 이동을 제외한 유입 방문 이동 수단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관광거점에서 차량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은평구 외부 방문객이 자연·종교·전통문화형 거점에 접근할 때 대중교통보다 자가용 또는 차량 기반 이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줌

- **진관사, 북한산성 입구, 은평한옥마을 일대** 등 자연·종교·전통문화형 거점은 **차량 접근 비중이 높아 외부 방문객의 자가용 기반 방문 수요가 강한 것**으로 해석됨. 이에 따라 주차 수용력, 진입도로 혼잡 관리, 거점 간 셔틀 또는 보행 연계 개선이 주요 과제로 판단됨
- **연신내역 일대**는 차량 비중 44.1%, 일반버스 비중 43.2%로 나타나 외부 유입 기준에서도 차량과 대중교통 접근이 함께 이루어지는 교통·상권형 거점으로 분석됨. 이는 연신내역 일대가 **은평구 내 대표 역세권 상권으로서 버스 기반 접근성이 높은 거점**임을 보여줌.
- **응암동 먹자골목**은 차량 비중이 가장 높지만, **도보 비중이 14.4%**로 다른 거점 대비 높게 나타남. 이는 응암동 먹자골목이 **주변 생활권 및 인접 상권과 보행 기반**으로 연결되는 **식음 거점 성격**을 지님을 보여줌.

은평구 제외 기준 관광거점별 이동수단 비중



02 카드소비 분석

» 분석 대상 업종 선정

※ 카드 매출 데이터의 업종 분류 및 범위는 관광 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음식·카페, 쇼핑·소비, 숙박·여행, 문화·체험·레저, 교통·이동 업종을 중심으로 구성함.

- 은평구 관광 소비 특성을 보다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 **의료, 통신, 생활서비스, 교육 등 일상 소비 성격이 강한 업종은 제외**하였으며, 관광객의 **실제 방문·체류·소비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함

업종 구분	업종명
음식·카페	한식
	중식
	일식
	양식
	패스트푸드
	기타요식
	제과점
	커피전문점
쇼핑·소비	백화점
	의복/의류
	패션잡화
	화장품
	생활잡화/수입상품점
	문화용품
	쇼핑몰
	전용매장
	시계/귀금속

업종 구분	업종명
숙박·여행	호텔/콘도
	모텔,여관,기타숙박
	여행사/항공사
문화·체험·레저	영화/공연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게임방/오락실
	스포츠시설
교통·이동	택시
	고속버스/철도/여객선

Ⅲ.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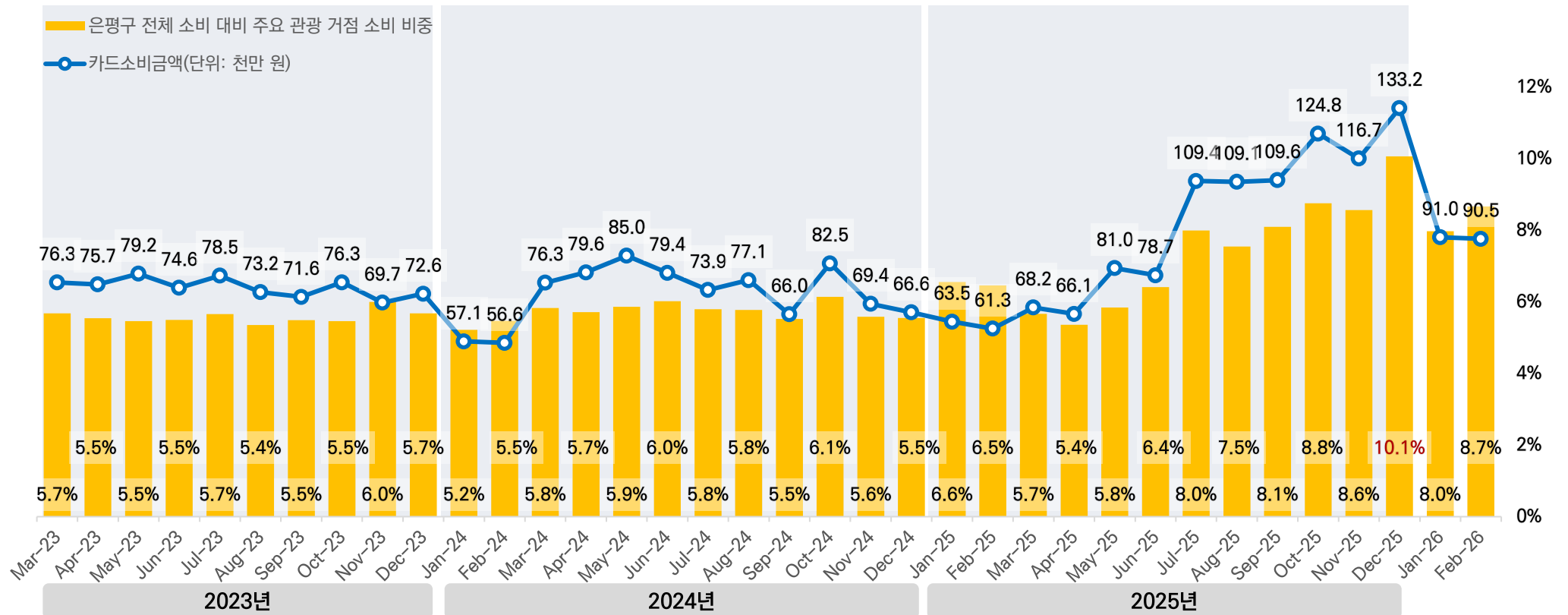
02 카드소비 분석

▶ 은평구 관광거점 소비 규모 및 비중 추이 분석

주요 관광거점 월평균 소비 규모는 약 8.1억 원으로, 은평구 전체 카드소비의 6.34%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은평구 주요 관광거점의 카드소비 규모는 전반적인 증가 흐름을 보였으며, 특히 **2025년 하반기 이후 소비 비중이 확대되는 경향**이 확인됨.
- 특히 은평구 전체 카드소비 대비 주요 관광거점 소비 비중은 **2023~2024년 평균 약 5~6%** 수준에서 유지되었으나, 2025년 들어 점진적인 증가 흐름을 보이며 **2025년 11월에는 약 10%** 수준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3개년 은평구 주요 관광거점 소비 규모 및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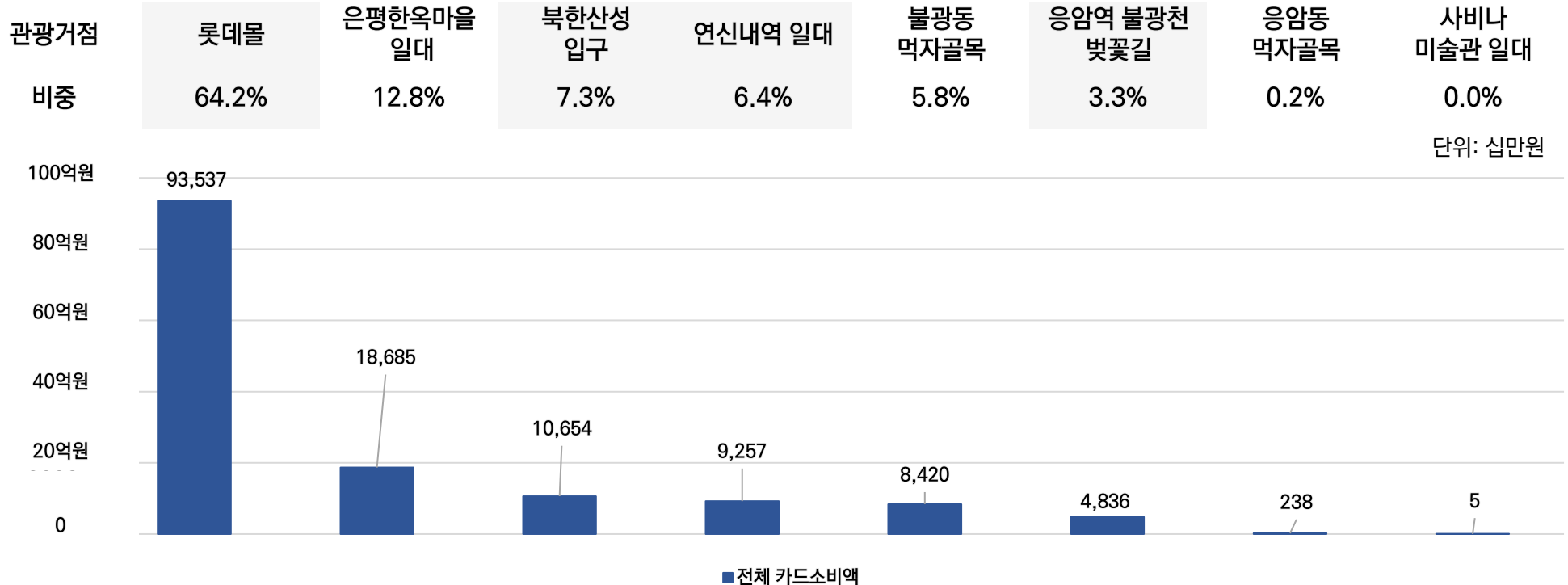
02 카드소비 분석

▶▶ 관광거점별 카드소비 규모 및 비중 분석

관광거점별 전체 카드소비 규모와 비중을 비교한 결과, 롯데몰의 카드소비가 전체 관광거점 소비의 64.2%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는 롯데몰이 은평구 관광거점 중 쇼핑·외식·실내 체류 소비가 가장 집중되는 핵심 소비 거점임을 보여줌

- 롯데몰 다음으로는 **은평한옥마을 일대 12.8%, 북한산성 입구 7.3%, 연신내역 일대 6.4%, 불광동 먹자골목 5.8%** 순으로 나타남. 은평한옥마을 일대와 북한산성 입구는 자연·전통문화 방문 이후 식음·휴식 소비가 발생하는 목적형 관광소비 거점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연신내역 일대와 불광동 먹자골목은 역세권·상권 기반의 식음 소비 거점으로 볼 수 있음
- 반면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 응암동 먹자골목, 사비나 미술관 일대**는 상대적으로 소비 규모가 작게 나타남. 해당 거점은 단독 소비 거점보다는 산책·문화·생활여가 방문 이후 주변 상권과 연계하여 소비를 유도하는 보조·연계형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관광거점별 카드소비 규모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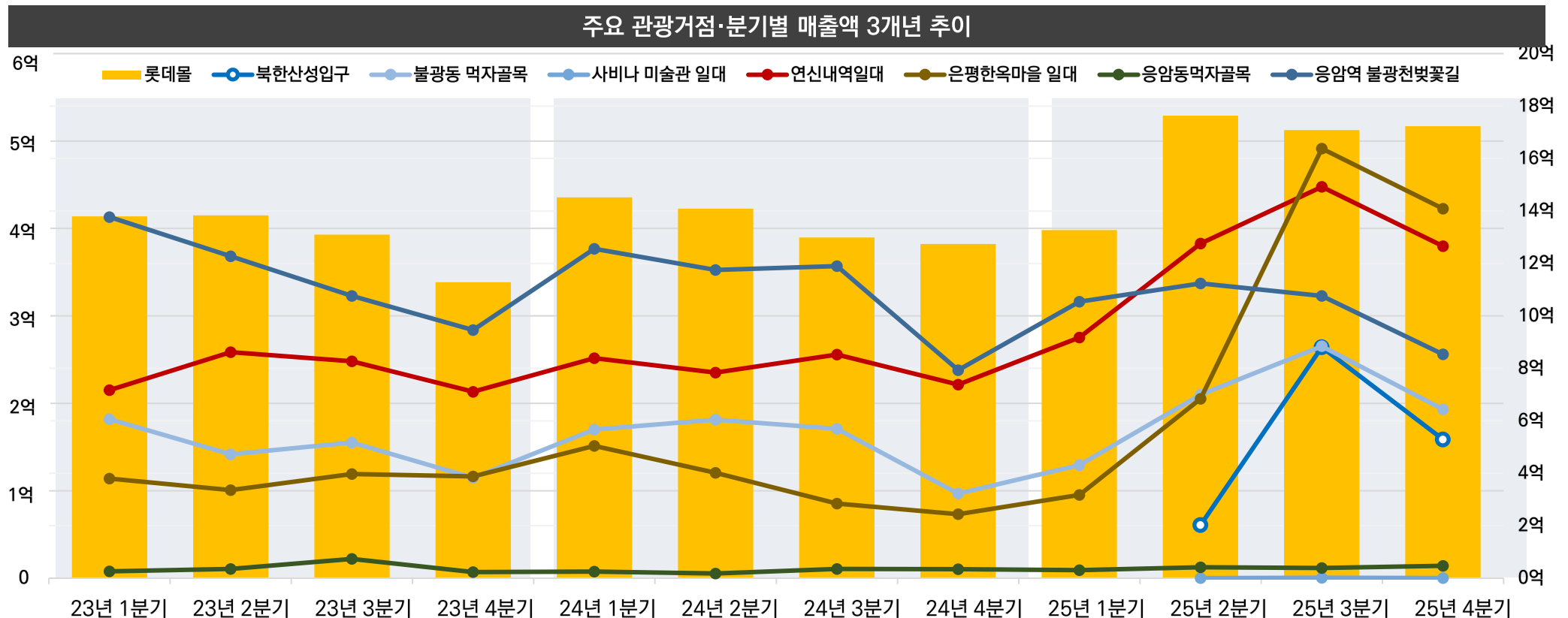
Ⅲ. 분석 결과

02 카드소비 분석

주요 관광거점 분기별 매출 추이 분석

롯데몰이 전 기간 가장 높은 소비 규모를 유지한 가운데, 2025년 이후 연신내역 일대와 은평한옥마을 일대의 소비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한편 진관사는 카드소비 데이터가 포착되지 않아 본 카드소비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함.

- 특히 2025년 2~3분기에는 야외활동 증가와 관광 성수기 영향으로 북한산성 입구·은평한옥마을·연신내역 일대를 중심으로 소비 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반대로 일부 거점에서는 4분기 이후 소비 규모가 조정되는 계절성이 나타남
- 또한 연신내역 일대는 상업·외식 중심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반면, 은평한옥마을 및 북한산 인접 관광지는 계절 및 관광 수요 변화에 따른 소비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확인됨



※ 본 그래프는 이중축 기준으로 작성됨. 롯데몰은 다른 관광거점 대비 매출 규모가 크게 나타나 우측 축(0~20억)을 기준으로 해석하며, 그 외 관광거점의 꺾은선 그래프는 좌측 축(0~6억)을 기준으로 해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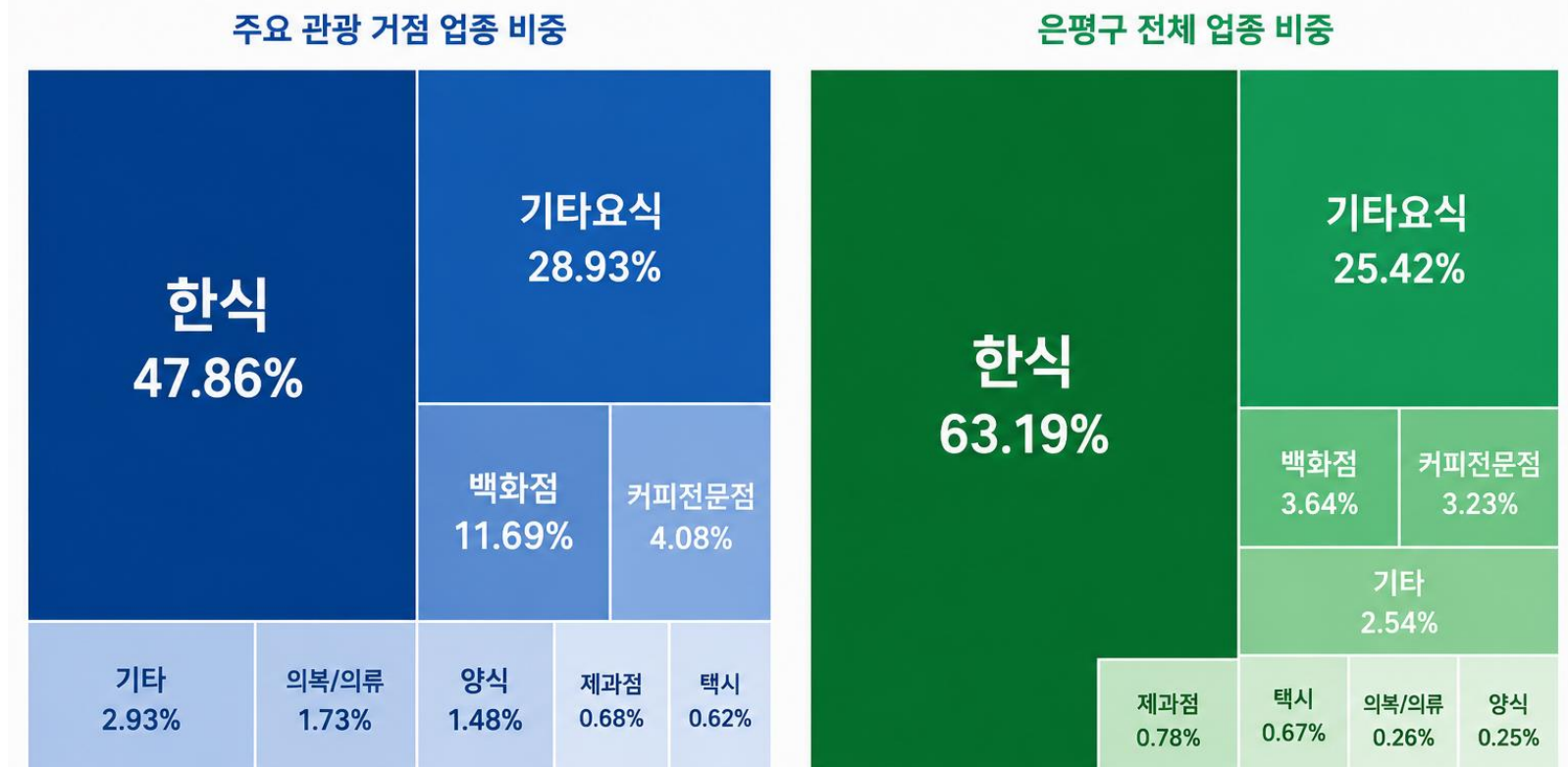
02 카드소비 분석

▶▶ 관광거점과 은평구 전체 소비 업종 구조 비교 분석

은평구 전체는 한식 비중이 주요 관광거점(47.86%) 대비 63.19%로 높게 나타나 생활형 외식 소비 중심 상권 특성이 강한 것으로 분석됨

- 주요 관광거점의 백화점 업종 비중은 **롯데몰 은평점 영향으로 11.69% 수준**까지 높게 나타났으며, 은평구 전체(3.64%) 대비 약 3배 이상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주요 관광거점의 **의복/의류와 양식 업종 비중**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쇼핑·외식 중심의 복합 소비 특성**이 형성된 것으로 해석됨.

주요 관광거점 및 은평구 전체 업종 비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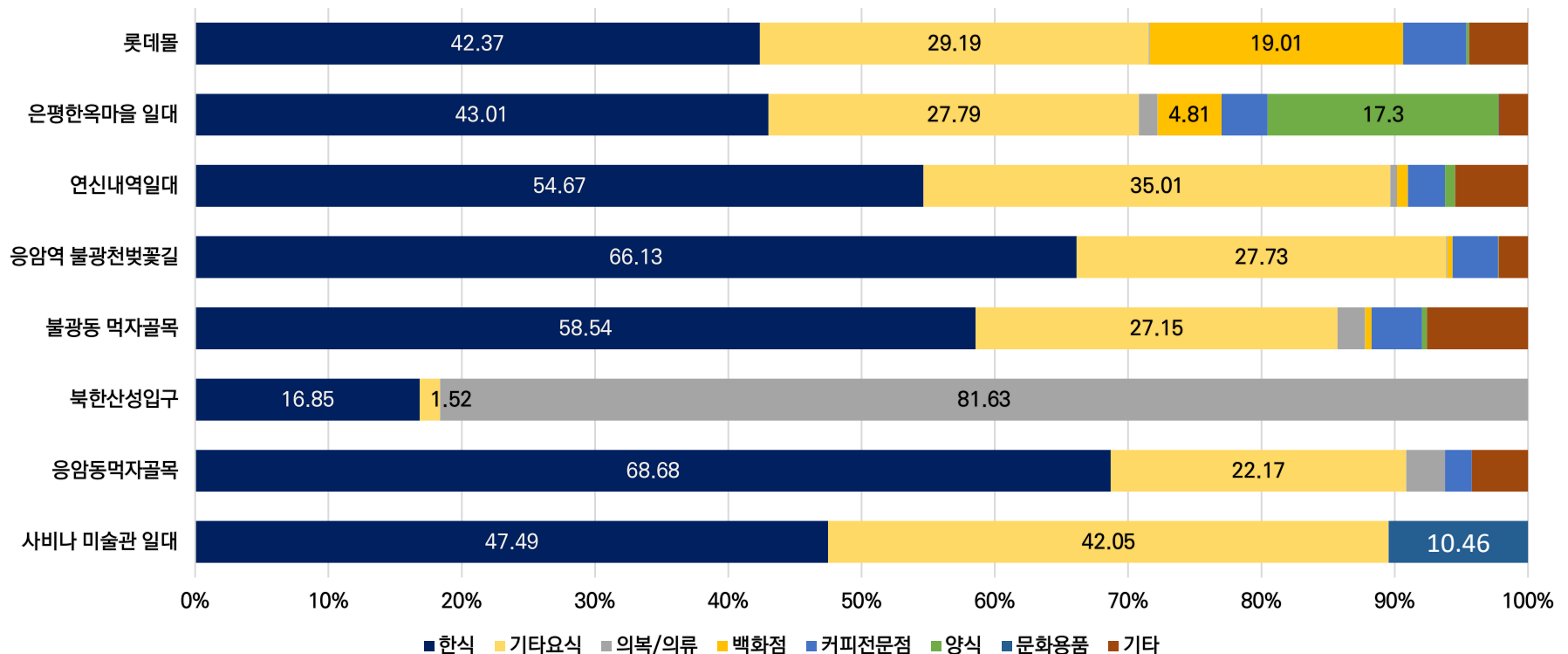
02 카드소비 분석

주요 관광거점별 소비 업종 구성 비교 분석

대부분 관광거점에서 한식 및 기타요식 중심의 외식 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 음식·외식 중심 관광 소비 특성이 공통적으로 확인됨

- **응암동 먹자골목(68.68%),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66.13%), 불광동 먹자골목(58.54%)** 등은 한식 업종 비중이 높게 나타나 지역 기반 외식 소비 중심 상권 특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됨.
- 반면 **롯데몰은 백화점 업종 비중이 19.0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쇼핑 중심 소비 특성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은평한옥마을 일대는 양식(17.3%)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관광·카페·체험형 소비가 함께 이루어지는 특징이 확인됨.**
- 또한 **사비나 미술관 일대는 문화용품 비중이 10.46%로 타 관광거점 대비 높게 나타나 문화·전시 중심 소비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주요 관광거점별 카테고리 매출액 비중



Ⅲ. 분석 결과

02 카드소비 분석

➤ 롯데몰 카드소비 기반 관광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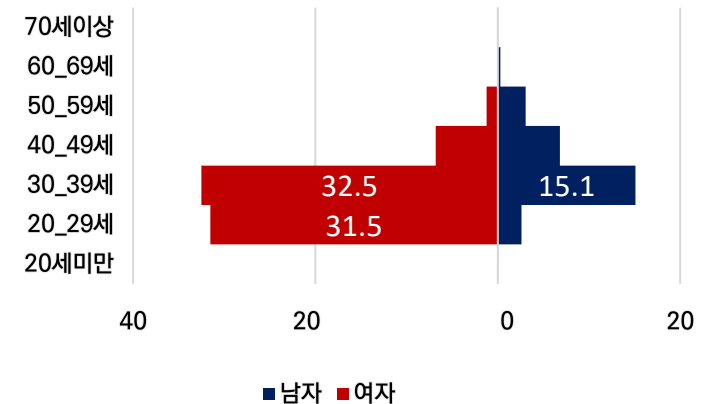
롯데몰은 주요 관광거점 중 쇼핑·복합소비 성격이 가장 강한 거점으로, 30대 중심의 카드소비와 저녁 시간대 소비 집중 현상이 두드러짐

- 성·연령별 카드소비를 살펴보면 30~39세 여성(32.5%), 20~29세 여성(31.5%), 30~39세 남성(15.1%) 순으로 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남. 이는 롯데몰이 백화점·쇼핑몰·외식시설이 결합된 복합 소비공간이라는 점에서, 쇼핑 및 외식 목적의 여성 소비층 유입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 결과로 해석됨
- 특히 11~14시와 17~21시 시간대 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 쇼핑·외식·체류형 소비가 결합된 복합상권 특성이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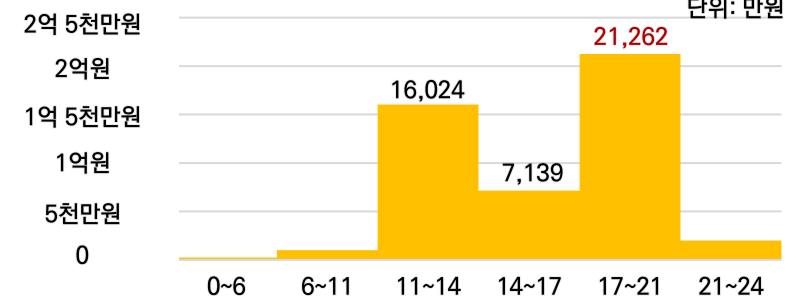
롯데몰 카드소비 히트맵



성연령별 카드소비 비중(%)



시간대별 카드소비 합계



Ⅲ.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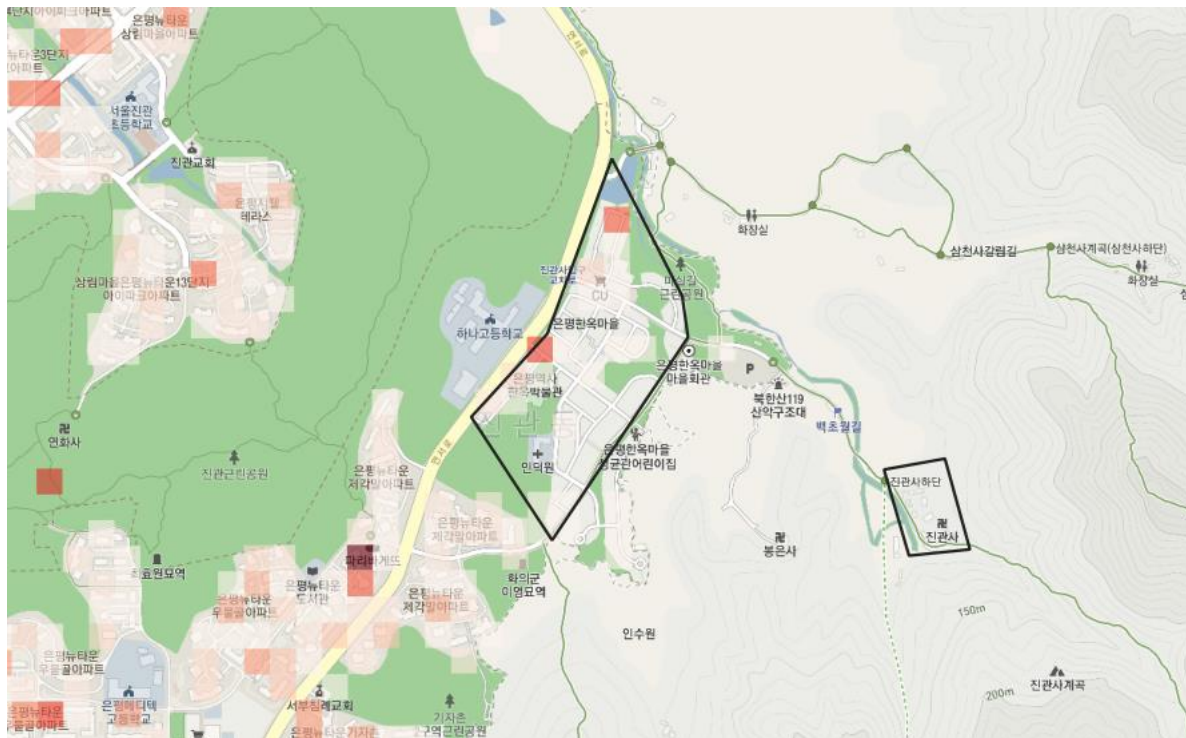
02 카드소비 분석

▶ 은평한옥마을 일대 카드소비 기반 관광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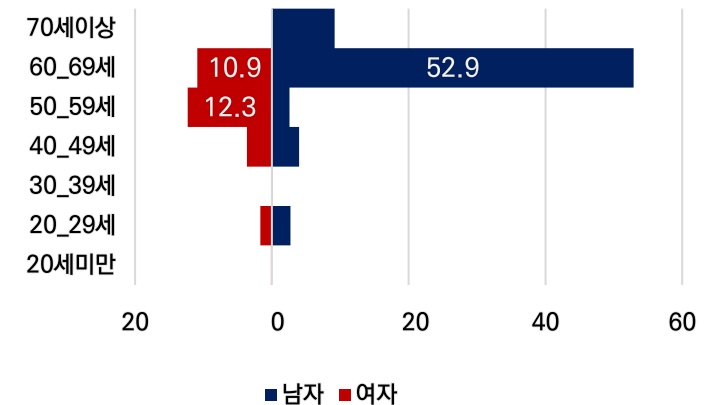
은평한옥마을 일대는 북한산·진관사와 인접한 전통문화형 관광거점으로, 주간 시간대 중심의 소비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남

- 은평한옥마을 일대는 11~14시 점심 시간대 소비가 가장 높고, 14~17시 오후 시간대에도 소비가 이어져 주간형 관광거점 특성이 확인됨. 성·연령별로는 60대 이상 남성(62.5%)과 50~60대 여성(23.1%) 소비가 두드러져 중장년층 및 가족·단체 방문 수요와 연계된 소비 특성이 강한 것으로 해석됨.
- 이는 은평한옥마을이 야간 상권보다는 점심 식사, 한옥마을 산책, 카페 방문 등을 결합한 주간 체류·식음 연계형 관광코스에 적합함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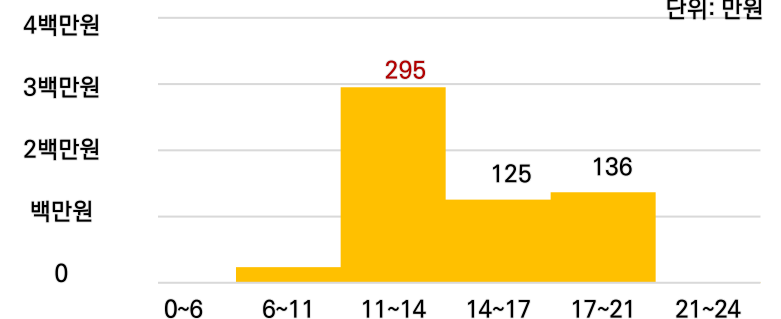
은평한옥마을 일대 카드소비 히트맵



성연령별 카드소비 비중(%)



시간대별 카드소비 합계



Ⅲ.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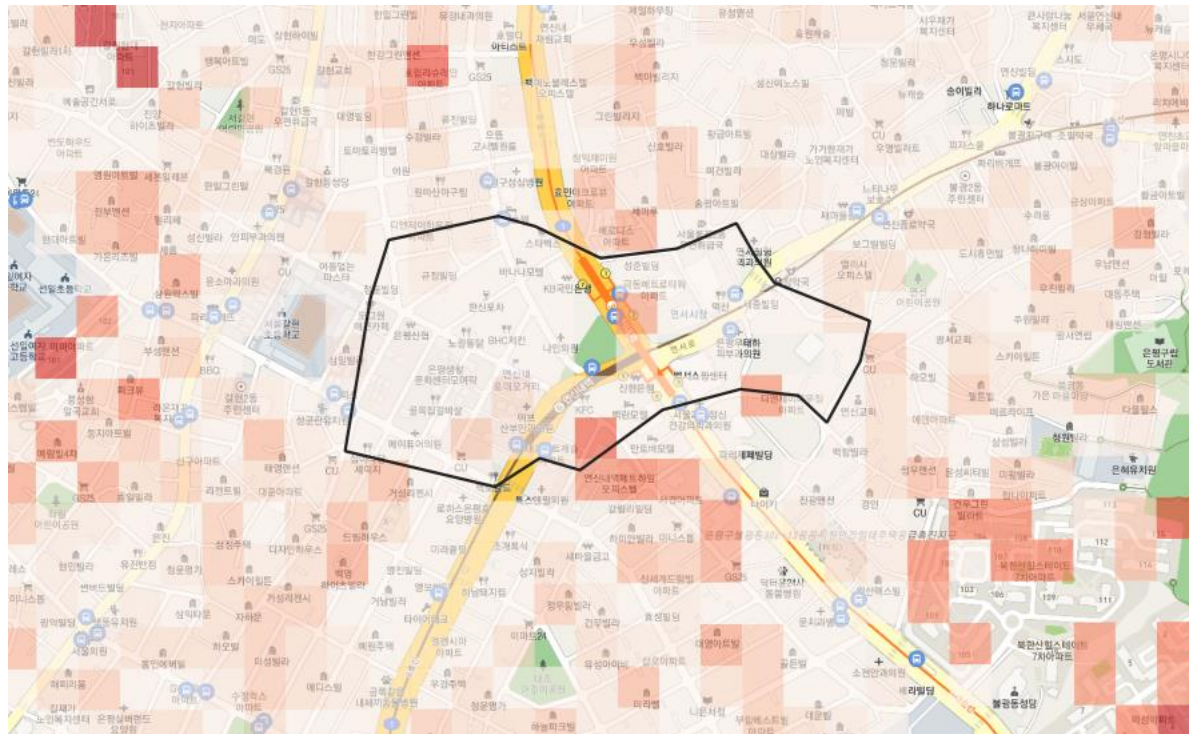
02 카드소비 분석

연신내역 일대 카드소비 기반 관광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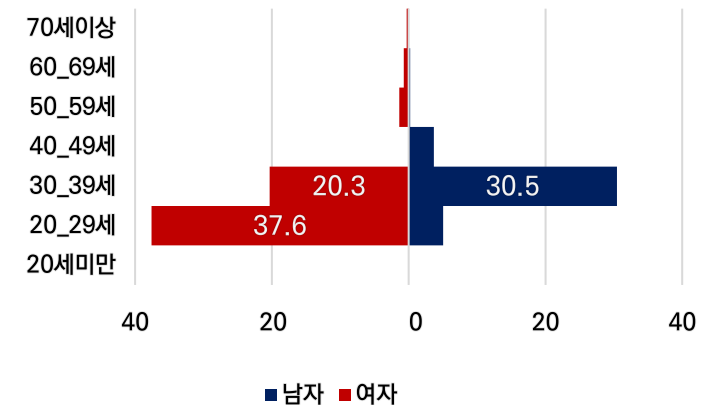
연신내역 일대는 지하철역과 상권이 결합된 은평구 대표 생활·상업 중심지로, 저녁 시간대 소비와 20대 여성 소비가 두드러지는 상권형 관광거점으로 나타남

- 연신내역 일대는 17~21시 저녁 시간대 소비가 가장 높고, 11~14시 점심 소비도 크게 나타나 쇼핑·생활소비가 결합된 도심형 상권 거점 특성이 확인됨. 성·연령별로는 20~30대 여성 소비 비중이 57.9%, 30대 남성 소비 비중이 30.5%로 높게 나타나 젊은 층 중심의 쇼핑·문화 소비 수요가 강한 지역으로 해석됨.
- 따라서 연신내역 일대는 단독 관광지보다는 북한산성 입구, 은평한옥마을, 불광천 등 주요 관광거점 방문 이후 저녁 식사·쇼핑·상권 체류를 연결하는 코스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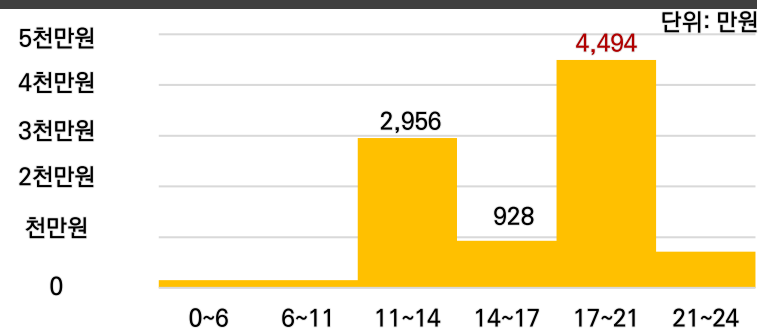
연신내역 일대 카드소비 히트맵



성연령별 카드소비 비중(%)



시간대별 카드소비 합계



Ⅲ.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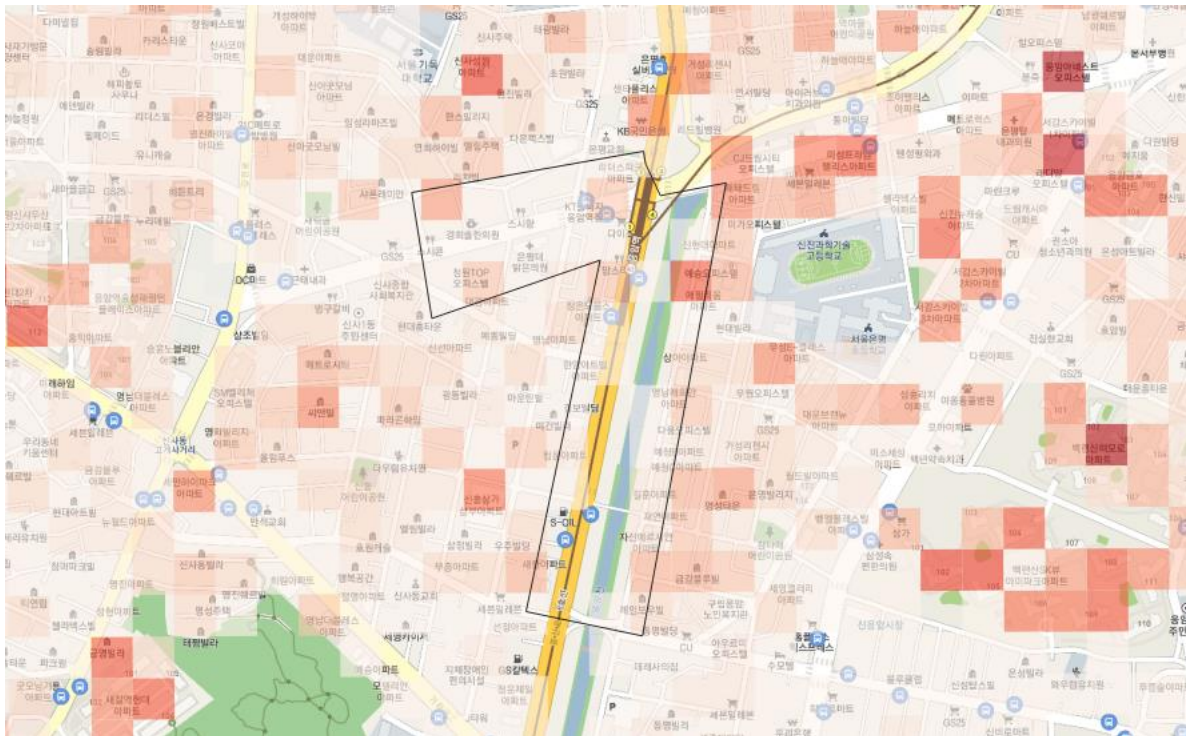
02 카드소비 분석

»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 카드소비 기반 관광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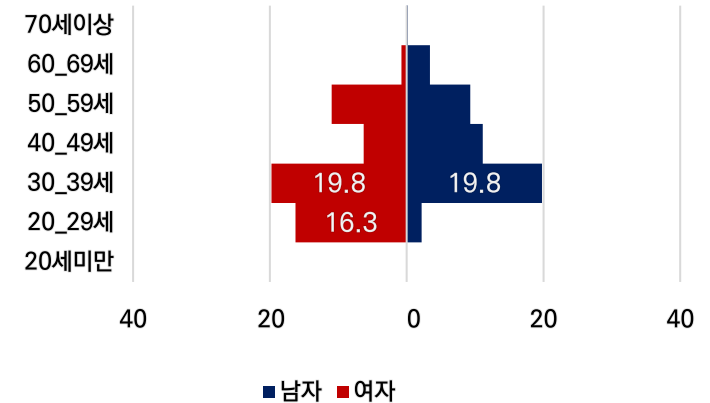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은 불광천 산책로와 역세권 생활상권이 결합된 거점으로, 저녁 시간대 소비와 30대 남성과 여성의 소비가 두드러지는 산책·식음 연계형 관광거점으로 나타남

-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은 17~21시 저녁 시간대 소비가 가장 높고, 11~14시 점심 소비도 비교적 크게 나타나 산책 전후 식사·카페·생활소비가 연계되는 복합 생활·상권형 관광거점 특성이 확인됨. 성·연령별로는 30대 남성과 여성 소비가 각각 19.8%로 높고, 50대 소비도 일정 수준 나타나 인근 생활권 주민, 직장인,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이용하는 거점으로 해석됨
- 따라서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은 벚꽃 시즌의 일시적 방문지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산책·식음·카페 소비를 연계하는 일상형 관광코스로 활용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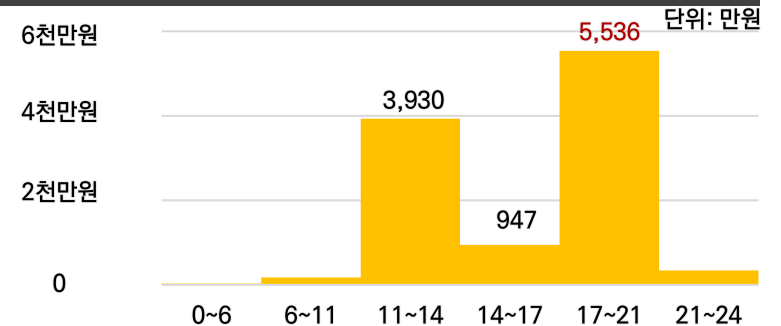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 카드소비 히트맵



성연령별 카드소비 비중(%)



시간대별 카드소비 합계



Ⅲ.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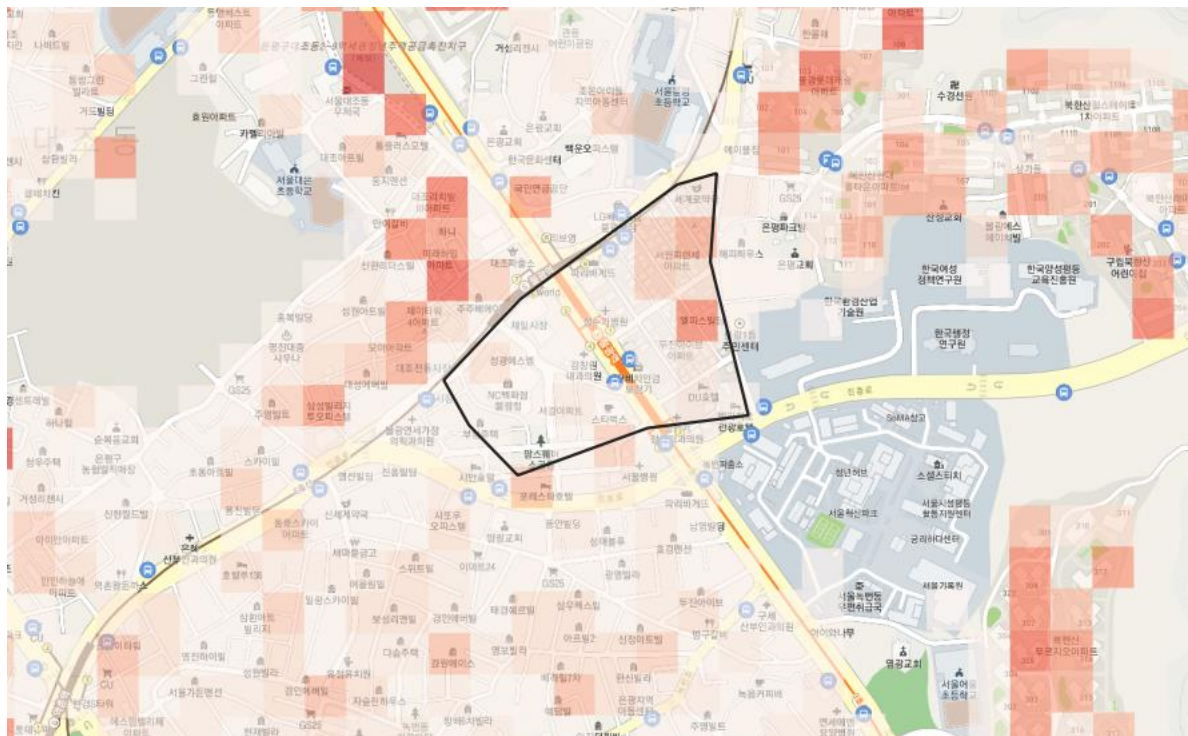
02 카드소비 분석

▶ 불광동 먹자골목 카드소비 기반 관광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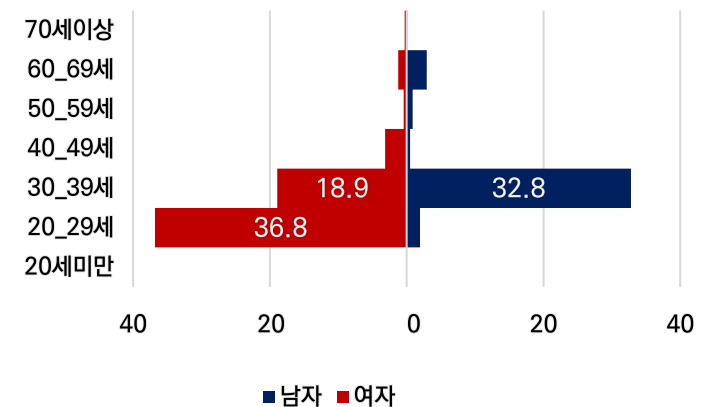
불광동 먹자골목은 역세권과 주거지 인접 상권이 결합된 식음 거점으로, 저녁 시간대 소비와 20대 여성, 30대 남성 소비가 두드러지는 식음·상권 중심 관광거점으로 나타남

- 불광동 먹자골목은 17~21시 저녁 시간대 소비가 가장 높고, 11~14시 점심 시간대에도 일정 수준의 소비가 나타나 식사·모임·생활상권 소비가 결합된 먹거리 중심 거점 특성이 확인됨. 성·연령별로는 20대 여성(36.9%)과 30대 남성(32.8%) 소비가 높게 나타나 젊은 층과 직장인 중심의 저녁 식음 소비 수요가 강한 상권으로 해석됨
- 따라서 불광동 먹자골목은 자연·문화 관광지와 직접 경쟁하는 거점이라기보다, 북한산성 입구·은평한옥마을 등 주요 관광거점 방문 이후 저녁 식사와 상권 체류를 연결하는 코스형 식음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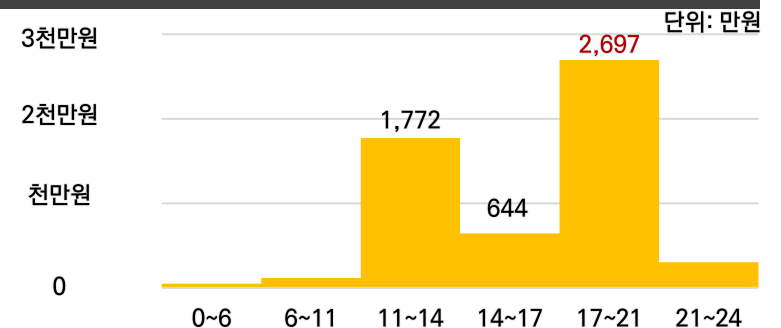
불광동 먹자골목 카드소비 히트맵



성연령별 카드소비 비중(%)



시간대별 카드소비 합계



Ⅲ.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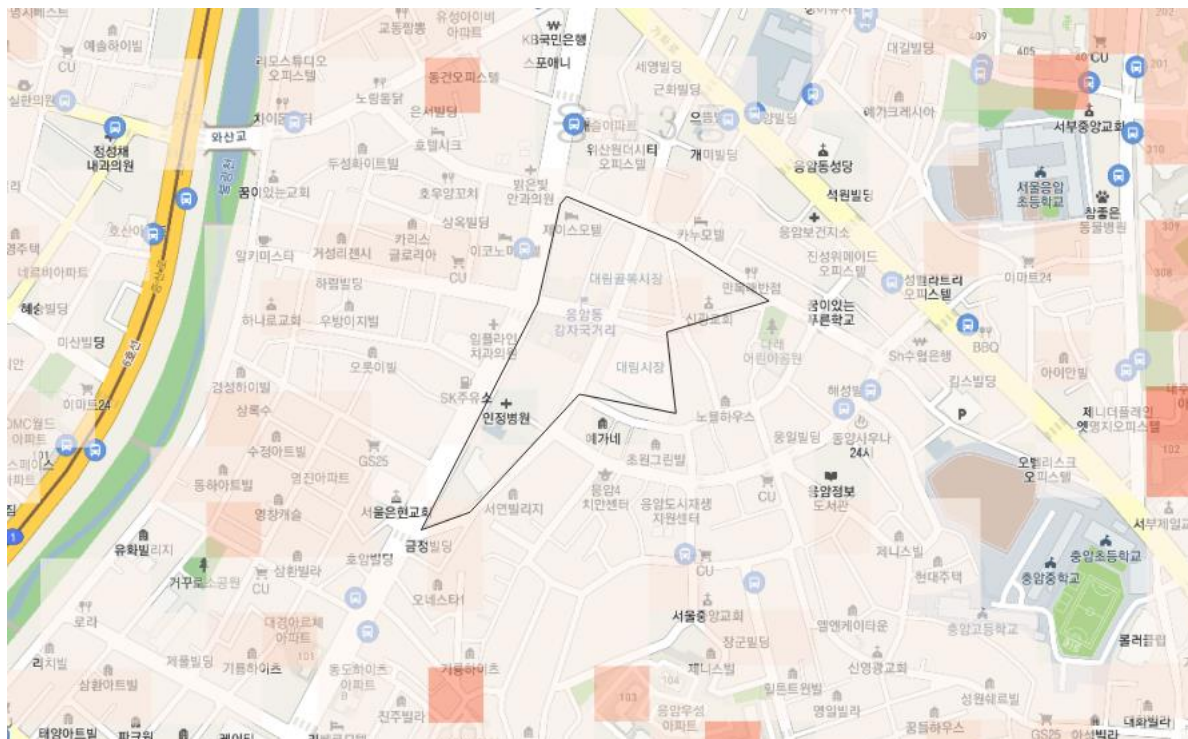
02 카드소비 분석

▶ 응암동 먹자골목 카드소비 기반 관광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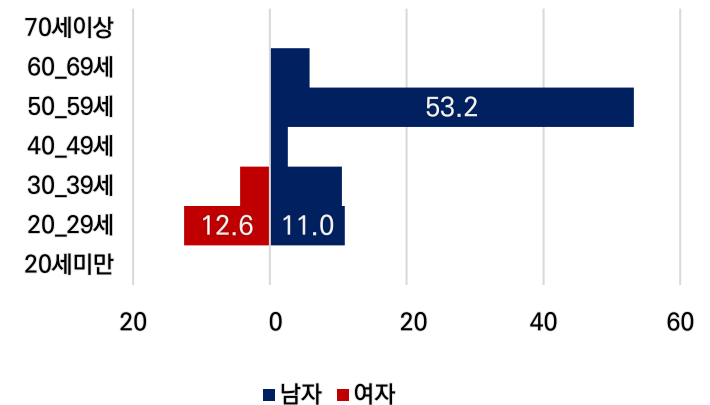
응암동 먹자골목은 주거지와 생활상권이 결합된 식음 중심 거점으로, 저녁 시간대 소비와 50대 이상 남성 소비가 두드러지는 중장년층 중심 식음·상권형 관광거점으로 나타남

- 응암동 먹자골목은 17~21시 저녁 시간대 소비가 가장 높고, 11~14시 점심 소비도 크게 나타나 점심 식사와 저녁 모임·회식성 소비가 함께 발생하는 생활밀착형 식음 거점 특성이 확인됨. 성·연령별로는 50대 남성(53.2%) 소비가 가장 높아 중장년층과 지역 생활권 수요가 강한 상권으로 해석됨.
- 따라서 응암동 먹자골목은 단독 관광지보다는 불광천 산책, 응암역 일대 방문, 주변 생활상권 이용 이후 저녁 식사와 모임 소비를 유도하는 코스형 식음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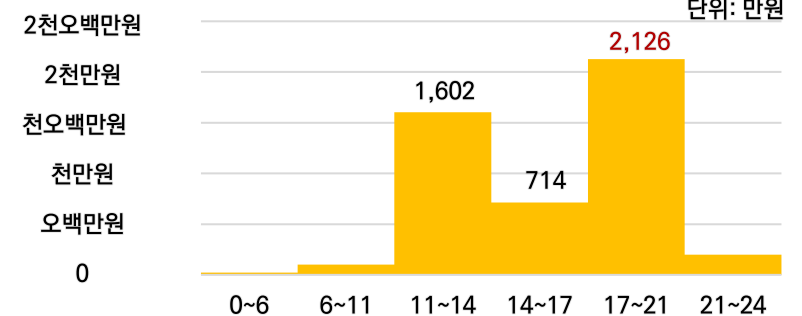
응암동 먹자골목 카드소비 히트맵



성연령별 카드소비 비중(%)



시간대별 카드소비 합계



Ⅲ. 분석 결과

02 카드소비 분석

▶ 관광거점별 카드소비 특성 종합 요약

롯데몰은 쇼핑·외식 중심의 핵심 소비거점, 연신내역 일대와 먹자골목은 저녁 식음·상권 거점, 은평한옥마을은 주간형 전통문화·식음 거점으로 구분됨

- 주요 관광거점의 카드소비는 롯데몰과 연신내역 일대를 중심으로 형성되며, 전체적으로 한식·기타요식 등 식음 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롯데몰은 쇼핑·외식·실내 체류가 결합된 핵심 소비거점이며, 연신내역 일대와 불광동·응암동 먹자골목은 저녁 식음·상권 소비를 담당하는 거점으로 구분됨
- 은평한옥마을 일대는 생활인구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점심·오후 시간대 식음·카페 소비가 확인되어 주간형 전통문화·식음 연계 코스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관광거점명	소비 규모	주력 업종·소비 구조	소비 피크 시간대	핵심 소비층	소비 역할
롯데몰	매우 높음	백화점·쇼핑·외식 중심	점심·저녁	20~30대 여성	쇼핑·외식·실내 체류 핵심 거점
연신내역 일대	높음	식음·쇼핑·생활소비 혼합	저녁	20~30대 여성, 30대 남성	저녁 상권·교통 연계 거점
은평한옥마을 일대	중간	식음·카페·전통문화 연계	점심·오후	중장년층, 가족·단체 방문객	주간형 전통문화·식음 거점
불광동 먹자골목	중간	한식·기타요식 중심 식음 소비	저녁	20대 여성, 30대 남성	저녁 식음·모임 거점
응암동 먹자골목	중간	한식 중심 생활밀착형 식음 소비	저녁	50대 남성	중장년층 생활권 식음 거점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	중간	산책 후 식음·카페·생활소비	저녁	30대 남녀, 50대	산책·카페·식음 연계 거점
북한산성 입구	낮음~중간	일부 업종 편중, 자연관광 연계 소비	점심·오후·저녁	등산·자연관광 방문객	자연관광 후 소비 연계 필요 거점
사비나 미술관 일대	낮음	문화용품 일부 비중 확인	주간	문화시설 방문객	문화형 보조 거점
진관사	낮음	카드소비 포착은 제한적이나 종교·자연 관광 중심의 상징 거점 역할 수행	주말·주간 중심	종교·자연 방문객	한옥마을·북한산 연계 보조 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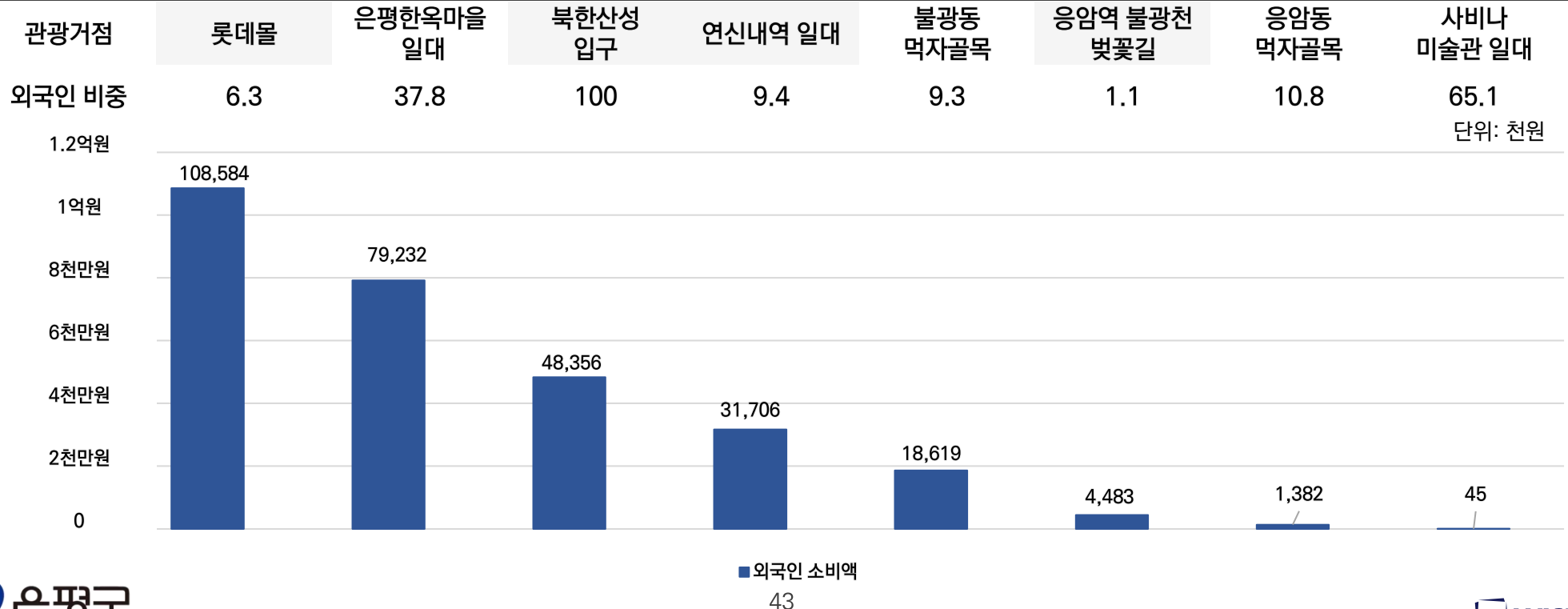
02 카드소비 분석

▶ 외국인 카드소비 기반 관광거점 집중도 분석

2025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의 외국인 카드소비 데이터를 기준으로 외국인 소비 규모와 비중을 비교한 결과, 롯데몰과 은평한옥마을 일대는 외국인 소비 규모가 크게 나타난 반면, 일부 거점은 전체 소비 대비 외국인 비중이 과도하게 높게 산출되었음

- 2025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의 관광거점 카드소비 데이터를 기준으로 외국인 소비 규모와 비중을 비교한 결과, 롯데몰과 은평한옥마을 일대는 외국인 소비 규모가 크게 나타난 반면, 일부 거점은 전체 소비 대비 외국인 비중이 과도하게 높게 산출되었음. 특히 북한산성 입구의 외국인 비중 100%는 내국인 소비가 없다는 의미라기보다, 해당 관광거점 범위 내에서 내국인 카드소비가 데이터상 포착되지 않은 결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외국인 관광거점 우선순위를 판단할 때는 외국인 비중만이 아니라 외국인 소비액 규모, 전체 소비 규모, 업종 구성, 데이터 집계 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관광거점별 외국인 카드소비 규모 및 비중 (25.07~2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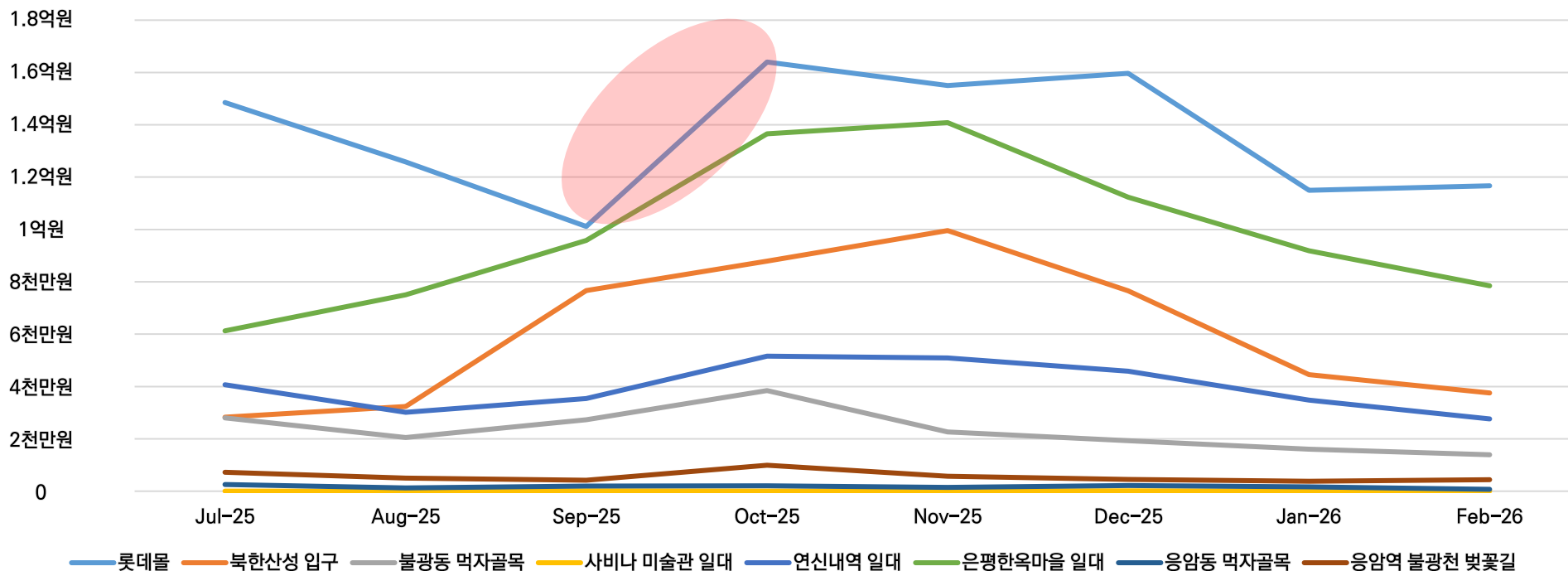
02 카드소비 분석

» 외국인 카드소비 기반 관광거점별 카드소비 추이

외국인 관광거점 카드소비 흐름을 살펴보면, 2025년 10~12월 주요 거점 전반에서 소비가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남. 다만 2026년 1~2월에는 대부분 거점에서 소비 규모가 감소해, 연말 성수기 이후 외국인 소비가 둔화된 것으로 해석됨

- 월별 추이를 보면 롯데몰은 전 기간 가장 높은 외국인 소비 규모를 유지하며, 2025년 10월 이후 1.5~1.6억 원 수준까지 확대되었다가 2026년 초 다소 감소하였음. 은평한옥마을 일대는 2025년 10~11월 소비가 크게 증가해 롯데몰 다음의 핵심 외국인 소비 거점으로 나타나며, 전통문화·식음 연계형 소비 수요가 강한 것으로 해석됨
- 북한산성 입구는 2025년 9~11월 소비가 급증한 후 2026년 초 감소세를 보이고, 연신내역 일대는 월별 변동은 있으나 중간 규모의 소비 거점으로 유지됨. 반면 사비나 미술관 일대, 응암동 먹자골목,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은 소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외국인 소비 핵심 거점보다는 보조적·연계형 거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월별 외국인 카드소비 추이



Ⅲ.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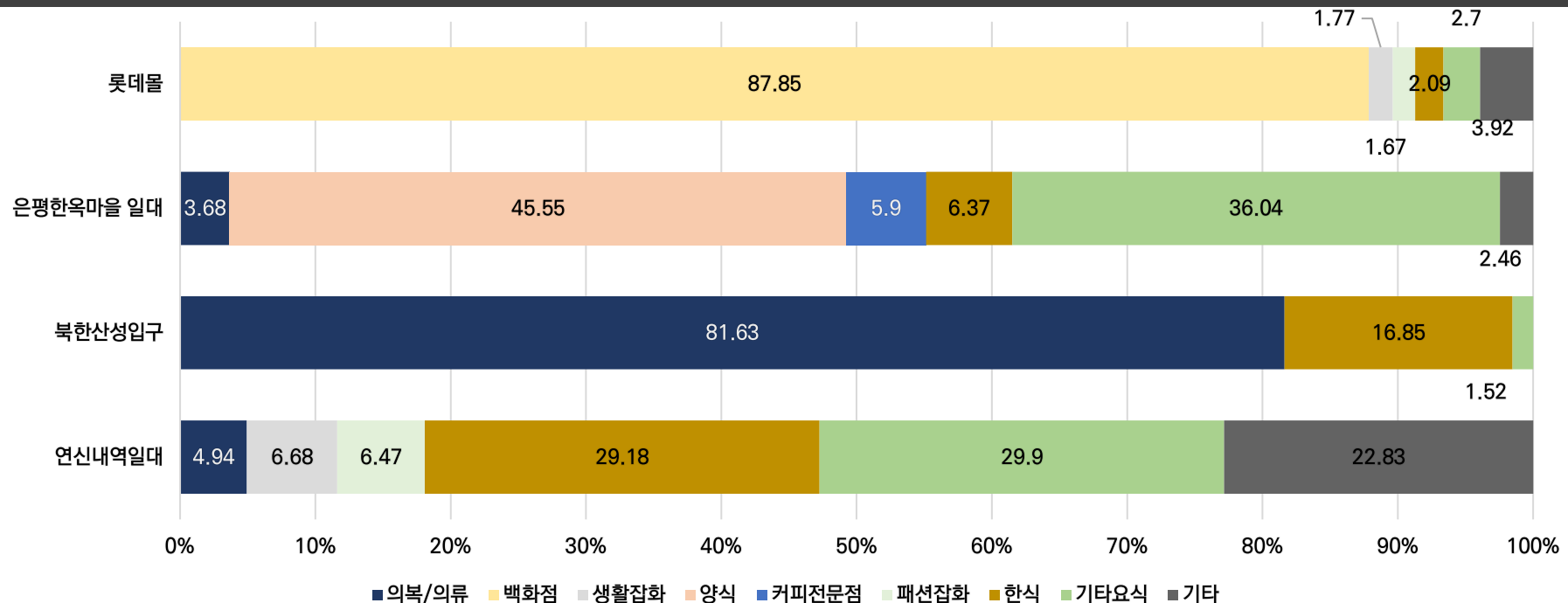
02 카드소비 분석

▶ 관광거점별 외국인 카드소비 업종 비중 분석 (1)

롯데몰은 백화점 중심 쇼핑형, 은평한옥마을 일대는 양식·기타요식 중심 식음형, 연신내역 일대는 식음·생활소비가 혼합된 상권형 거점으로 나타남

- 롯데몰은 백화점 소비 비중이 87.85%로 압도적으로 높아, 외국인 소비가 대형 쇼핑시설 중심으로 집중되는 구조를 보임. 이는 롯데몰이 단순 방문지라기보다 외국인 소비를 직접 유도하는 쇼핑형 핵심 소비 거점임을 보여줌.
- 은평한옥마을 일대는 양식 45.6%, 기타요식 36.0%로 식음 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남. 이는 전통문화 방문 이후 식사·카페·휴식 소비로 이어지는 전통문화·식음 연계형 관광거점으로 해석할 수 있음. 연신내역 일대는 기타요식, 한식, 기타 소비가 고르게 나타나며, 특정 업종에 집중되기보다는 식음·생활소비가 혼합된 역세권 상권형 거점으로 볼 수 있음
- 북한산성 입구는 의복·의류 비중이 81.63%로 높게 나타나 일반적인 자연관광 소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이는 등산·아웃도어 관련 소비 또는 특정 업종 결제가 크게 반영된 결과일 수 있으므로, 외국인 자연관광 선호 업종으로 단정하기보다 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보수적 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카드 소비 비중 상위 4개소 관광거점별 외국인 카드소비 업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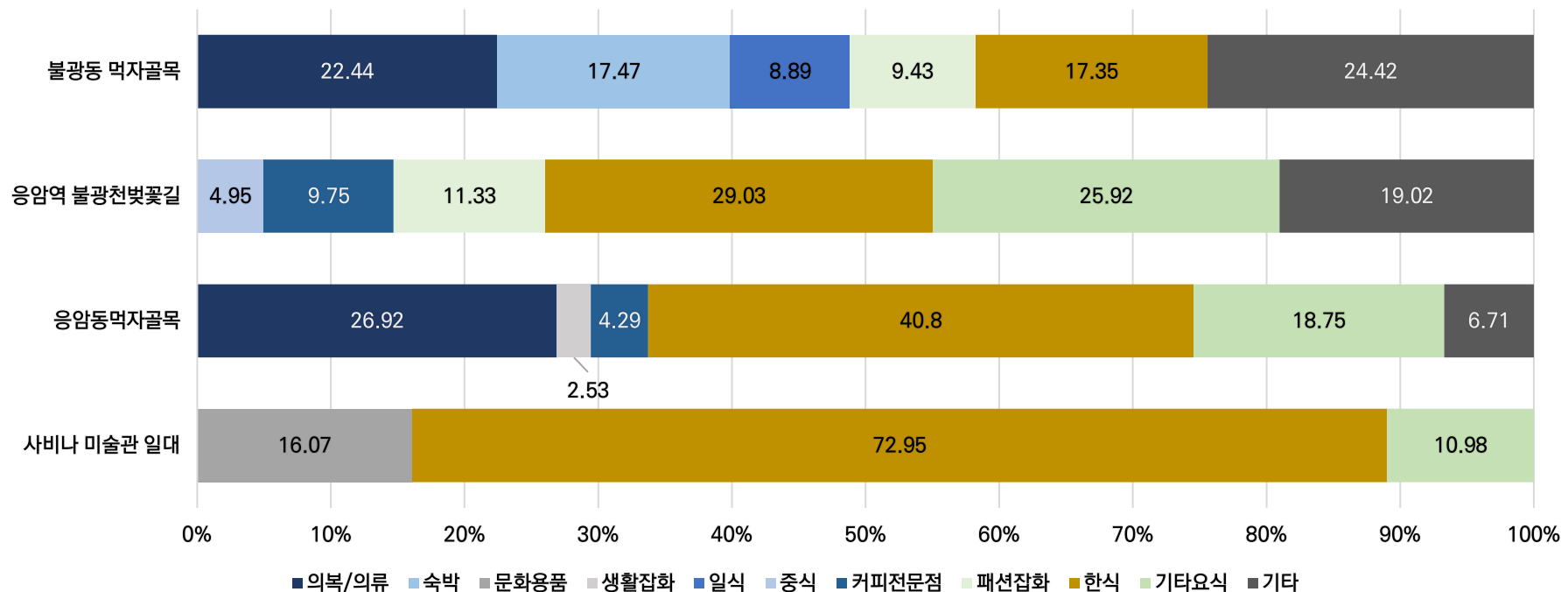
02 카드소비 분석

▶ 관광거점별 외국인 카드소비 업종 비중 분석 (2)

먹자골목, 벚꽃길, 미술관 일대의 외국인 소비 업종은 전반적으로 식음·숙박·의류·기타 소비가 혼재되어 나타남. 다만 일부 거점은 외국인 소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업종 비중을 핵심 소비 특성으로 단정하기보다는 보조적·연계형 관광거점의 참고 지표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불광동 먹자골목은 의복·의류, 숙박, 한식, 기타 소비가 분산되어 나타남. 먹자골목이라는 명칭과 달리 외국인 소비 기준에서는 식음 소비만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으며, **숙박·의류·식음 소비가 함께 발생하는 혼합형 상권 거점**으로 해석됨
- 응암동 먹자골목은 한식 비중이 40.8%로 가장 높고, 의복·의류와 기타요식 비중도 함께 나타남. 이는 외국인 소비가 일부 식음 업종에 집중되지만, 전체 소비 규모가 크지 않아 핵심 외국인 소비 거점보다는 **식음 연계형 보조 거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은 한식 29.03%, 기타요식 25.92%, 기타 19.02%로 식음 소비와 기타 소비가 함께 나타남. 산책형 관광자원과 주변 생활상권이 결합된 구조로, 외국인 대상 단독 목적지보다는 불광천 산책 이후 **식사·카페 소비로 연결되는 연계형 거점**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카드 소비 비중 하위 4개소 관광거점별 외국인 카드소비 업종 비중



Ⅲ. 분석 결과

02 카드소비 분석

▶▶ 관광거점별 외국인 카드소비 시간대 이용현황

외국인 카드소비는 전반적으로 점심·오후·저녁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관광거점별로 소비 피크 시간이 다르게 나타남. 롯데몰·은평한옥마을 일대는 점심~오후 소비가 강하고, 먹자골목은 저녁, 불광천 벚꽃길은 점심~오후 소비 비중이 높아 거점별 시간대 역할 구분이 가능함

- 롯데몰은 오후 36.6%, 저녁 34.0%, 점심 24.2%로 점심 이후부터 저녁까지 소비가 이어지는 쇼핑·식음형 거점으로 나타남. 은평한옥마을 일대는 점심 35.7%, 오후 34.7% 비중이 높아 주간 방문과 식사·카페 소비를 연계하는 전통문화형 거점으로 해석됨. 북한산성 입구도 저녁 34.9%, 오후 24.3%, 점심 22.8%로 나타나 자연관광 이후 식음 소비가 발생하는 구조로 볼 수 있음
- 연신내역 일대는 점심 비중이 84.5%로 매우 높게 나타남. 세부 업종 확인 결과, 연신내역 일대의 점심 시간대 카드소비는 기타요식(28.1%), 한식(26.2%), 양식(10.6%), 제과점(10.5%) 등 식음 업종 중심으로 나타나, 점심 식사·간식 소비가 집중된 결과로 해석됨. 불광동 먹자골목과 응암동 먹자골목은 각각 저녁 34.7%, 33.5%로 저녁 소비 비중이 가장 높아 식음·상권형 거점의 특성이 확인됨. 또한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은 점심 47.9%, 오후 35.2%로 주간 산책·식음 연계형 소비가 강한 것으로 파악됨

관광거점별 시간대 외국인 카드 소비 비중 현황

관광거점명	이른 아침(0~6)	오전(6~11)	점심(11~14)	오후(14~17)	저녁(17~21)	심야(21~24)
롯데몰	0.1%	1.1%	24.2%	36.6%	34%	3.9%
은평한옥마을 일대	0%	5.7%	35.7%	34.7%	23.8%	0%
북한산성 입구	1.6%	7.2%	22.8%	24.3%	34.9%	9.3%
연신내역 일대	0%	1.8%	84.5%	8.2%	5.5%	0%
불광동 먹자골목	8.1%	3.5%	16.3%	16.4%	34.7%	21%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	0%	8.6%	47.9%	35.2%	8.3%	0%
응암동 먹자골목	3%	5.5%	24.3%	24.7%	33.5%	8.9%
사비나 미술관 일대	1.6%	7.4%	21%	18.2%	37.5%	14.2%

Ⅲ. 분석 결과

02 카드소비 분석

» 외국인 카드소비 기반 관광거점 특성 종합 요약

외국인 소비 전략은 롯데몰 중심의 쇼핑형 거점과 은평한옥마을 중심의 전통문화·식음형 거점을 우선축으로 설정하고, 북한산성 입구·불광천·먹자골목은 연계형 보조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외국인 카드소비는 롯데몰과 은평한옥마을 일대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롯데몰은 백화점 중심의 쇼핑 소비가 압도적으로 높아 외국인 소비를 직접 유도하는 핵심 쇼핑 거점으로 볼 수 있으며, 은평한옥마을 일대는 전통문화 방문 이후 식음·카페 소비가 이어지는 외국인 특화형 관광거점으로 해석됨.
- 다만 북한산성 입구, 사비나 미술관 일대 등 일부 거점은 소비 비중이 특정 업종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어 외국인 선호 거점으로 단정하기보다 데이터 포착 범위와 표본 규모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관광거점명	소비 규모	주력 업종·소비 구조	소비 피크 시간대	외국인 소비 특성	관광 활용 방향
롯데몰	매우 높음	백화점 중심 쇼핑 소비	오후·저녁	외국인 소비가 가장 크게 포착되는 쇼핑형 핵심 거점	외국인 쇼핑·외식 거점으로 우선 활용
은평한옥마을 일대	높음	양식·기타요식 중심 식음 소비	점심·오후	전통문화 방문 후 식사·카페 소비가 연결되는 거점	전통문화·식음 연계형 외국인 코스 구성
북한산성 입구	중간	의복·의류 비중 높음	오후·저녁	자연관광 소비로 단정하기보다 등산·아웃도어 또는 특정 업종 결제 영향 고려 필요	북한산·한옥마을 연계 보조 거점
연신내역 일대	중간	식음·생활소비 혼합	점심	점심 시간대 식음 소비 집중이 뚜렷한 역세권 상권형 거점	역세권 식음·상권 연계 거점
불광동 먹자골목	낮음~중간	숙박·의류·식음 소비 혼재	저녁·심야	먹자골목 명칭과 달리 외국인 소비는 복합 상권형으로 나타남	저녁 식음·체류 보조 거점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	낮음	한식·기타요식·기타 소비 혼합	점심·오후	산책 후 식사·카페 소비로 연결되는 생활여가형 거점	불광천 산책·식음 연계 코스
응암동 먹자골목	낮음	한식 중심 일부 식음 소비	저녁	외국인 소비 규모가 작아 핵심 거점보다는 보조 거점 성격	지역 식음 연계 보조 거점
사비나 미술관 일대	매우 낮음	일부 업종 비중 편중	저녁	표본 규모가 작아 업종 비중 해석에 주의 필요	문화형 보조 거점

03 복합 분석

▶ 대표 관광코스 도출 프로세스

대표 관광코스는 최근 1년 기준의 생활인구·카드소비·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를 결합하여 도출하였음. 생활인구를 통해 거점별 체류 특성을 확인하고, 카드소비를 통해 소비 발생 거점을 파악하였으며, 생활이동 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광거점 간 실제 이동 흐름과 연계 가능성을 검증하였음

- 체류인구는 ‘어디에 머무는가’, 생활이동은 ‘어디로 이동하는가’, 카드소비는 ‘어디에서 소비가 발생하는가’를 보여주며, 세 데이터를 결합해 실제 이용 가능성과 소비 유발 가능성이 높은 대표 관광코스를 도출하였음.
- 대표 관광코스는 특정 거점의 방문량이나 소비액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움. 생활인구가 높은 거점은 실제 체류 규모가 크다는 장점이 있지만, 관광객이 아닌 거주민·생활권 이용자도 함께 포함될 수 있으며, 카드소비가 높은 거점도 실제 관광 동선과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의 코스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체류, 이동, 소비 데이터를 각각 다른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여 코스 도출 과정을 단계화하였음

대표코스 도출 단계별 활용 데이터 및 목적

단계	명칭	활용 데이터	목적
1 1단계	거점별 체류·소비 역할 진단	생활인구, 카드소비	핵심 앵커 거점과 보조·확장 거점 구분
2 2단계	거점 간 이동축 검증	수도권 생활이동 OD	실제 이동 방향, 연결 강도, 주요 연계축 확인
3 3단계	연계 가능 코스 구성	체류·소비 유형, OD 이동량	연속 가능한 관광코스 후보 구성
4 4단계	대표코스 선정 및 해석	이동량, 소비액, 구간 연결성, 관광 시나리오	데이터 기반 우선순위와 관광 이용 시나리오를 반영한 최종 코스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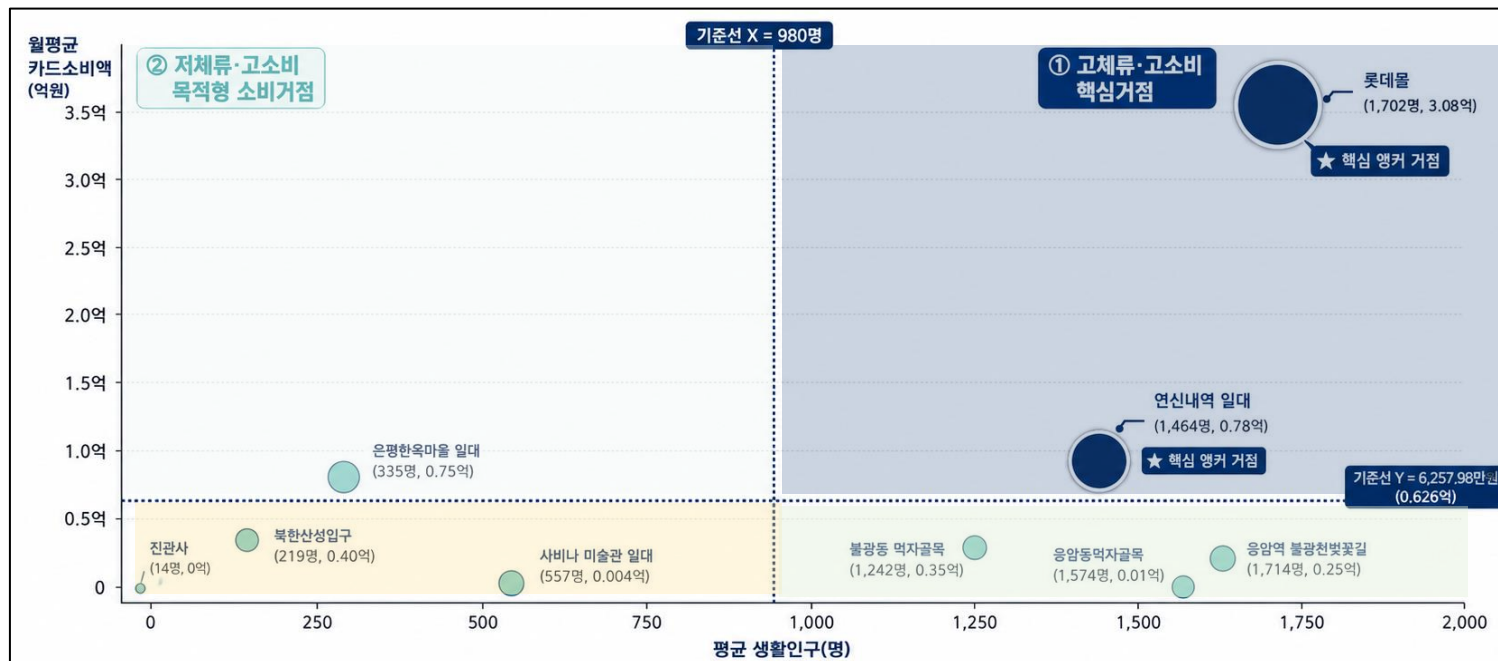
03 복합 분석

▶ 거점별 체류 및 소비 진단 분석

평균 생활인구와 월평균 카드소비액을 기준으로 9개 관광거점의 체류-소비 복합 유형을 분석한 결과, 롯데몰과 연신내역 일대는 모두 평균 기준선을 상회하는 고체류·고소비 거점으로 나타남

- 은평한옥마을 일대는 체류 규모는 낮지만 높은 소비를 보이는 목적형 소비거점으로, 자연·전통문화 방문과 식음 소비를 연결하는 확장 거점으로 해석됨.
- 반면 응암동 먹자골목,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 불광동 먹자골목은 생활인구 대비 소비가 낮아 소비 전환이 필요한 생활권형 거점으로 판단됨. 진관사와 사비나 미술관 일대, 북한산성 입구는 체류·소비 규모가 모두 낮아 단독 핵심거점보다는 주변 자연·문화 관광거점과 연계되는 보조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은평구 9개 관광거점의 체류 - 소비 복합 유형



① 고체류·고소비 핵심거점

롯데몰과 연신내역 일대는 높은 소비력과 체류성을 동시에 보유한 은평구의 핵심 앵커 거점임.

② 목적형 소비거점

은평한옥마을 일대는 상대적으로 체류는 낮지만 높은 소비를 보이며 목적형 방문객의 소비가 활발한 거점임.

③ 보조·연계거점

진관사, 사비나 미술관 일대, 북한산성 입구는 자체 소비력은 낮지만 핵심 거점과의 연계를 통해 관광 동선을 보완하는 보조·연계거점임.

④ 소비전환 필요거점

응암동 먹자골목,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 불광동 먹자골목은 상대적으로 높은 체류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낮아 소비 전환 전략이 필요한 거점임.

X,Y 축 기준값
산정 방식

X축(평균 생활인구)은 3개년(2023.03~2026.02) 동안 9개 관광거점의 평균 생활인구를 산출한 후, 그 평균값(980명)을 기준선으로 설정함.

Y축(월평균 카드소비액)은 3개년(2023.03~2026.02) 동안 9개 관광거점의 월평균 카드소비액을 산출한 후, 그 평균값(6,257.9만원)을 기준선으로 설정함.

Ⅲ. 분석 결과

03 복합 분석

▶▶ 거점 간 이동측 검증

관광거점 간 이동은 롯데몰, 연신내역 일대, 북한산성 입구, 불광동 먹자골목을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남. 특히 연신내역 일대 ↔ 롯데몰, 롯데몰 ↔ 북한산성 입구, 불광동 먹자골목 ↔ 연신내역 일대 구간의 이동량이 높게 확인됨

- 가장 강한 이동측은 연신내역 일대 → 롯데몰 4,058명, 롯데몰 → 연신내역 일대 3,682명으로, 이는 두 거점이 은평구 내 핵심 상권·쇼핑·교통 거점으로 상호 연결성이 매우 강함을 의미함. 대표 코스에서는 롯데몰과 연신내역 일대를 함께 묶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롯데몰 ↔ 북한산성 입구 측은 자연관광과 쇼핑·식음 소비를 연결하는 주요 이동측으로 확인됨. 양방향 이동량은 각각 3,190명, 2,815명으로 나타나, 북한산성 입구 방문 전후 롯데몰을 함께 이용하는 흐름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됨.
- 불광동 먹자골목 ↔ 연신내역 일대 측(2,968명, 2,920명)은 식음·상권 연계가 강하게 나타남.

관광거점 간 일평균 이동량 현황

		도착 관광거점명								
		롯데몰	북한산성 입구	불광동 먹자골목	사비나 미술관 일대	연신내역 일대	은평한옥마을 일대	응암동 먹자골목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	진관사
출발 관광거점명	롯데몰	-	3,190	809	155	3,682	427	53	143	7
	북한산성 입구	2,815	-	269	63	855	1,172	33	42	31
	불광동 먹자골목	1,155	340	-	3	2,968	43	79	186	2
	사비나 미술관 일대	523	141	15	-	66	28	2	2	0
	연신내역 일대	4,058	649	2,920	44	-	169	110	364	4
	은평한옥마을 일대	1,181	1,203	73	14	615	-	8	19	21
	응암동 먹자골목	107	49	118	1	151	7	-	325	0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	431	177	495	1	667	20	546	-	0
	진관사	7	24	2	0	9	22	0	0	-

03 복합 분석

▶ 카드소비 기반 연계 가능 코스 구성

분석 결과, 연신내역 일대 → 은평한옥마을 일대 → 북한산성 입구 → 롯데몰 코스의 총 카드소비액이 약 9.28억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11-14시 은평한옥마을 일대와 17-21시 롯데몰에서 비교적 큰 소비가 발생한 영향으로 해석됨

- 시간대별 소비 흐름을 살펴보면, 롯데몰이 포함된 시간대에서 카드소비액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됨. 특히 14-17시 또는 17-21시 롯데몰이 배치된 후보는 전체 카드소비액이 높게 나타나, 롯데몰이 대표 코스 내 핵심 소비 거점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은평한옥마을 일대와 북한산성 입구가 포함된 코스는 오전·점심 시간대의 자연·전통문화 방문 흐름과 결합될 수 있으며, 이후 롯데몰 또는 연신내역 일대로 연결될 경우 쇼핑·상권 소비로 확장되는 구조를 형성함.
- 다만 본 표는 시간대별 카드소비 규모를 기준으로 한 소비성 검토 결과이므로, 최종 대표코스 선정 시에는 인접 거점 간 구간 이동량과 최소 구간 이동량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대표 관광코스 후보별 시간대 카드소비 흐름

No	대표 관광코스 경로 후보	06 - 11	11 - 14	14 - 17	17 - 21	총 카드소비액
1	불광동 먹자골목 → 연신내역 일대 → 롯데몰 → 북한산성 입구	1,346만원	5,173만원	3.97억원	1.15억원	5.78억
2	롯데몰 → 북한산성 입구 → 불광동 먹자골목 → 연신내역 일대	1,211만원	1.72억원	4,516만원	1.1억원	3.4억
3	은평한옥마을 일대 → 북한산성 입구 → 롯데몰 → 연신내역 일대	6,787만원	1.72억원	3.97억원	1.1억원	7.48억
4	연신내역 일대 → 은평한옥마을 일대 → 북한산성 입구 → 롯데몰	1,121만원	3.79억원	1.67억원	3.69억원	9.28억

03 복합 분석

▶ 이동량 기반 연계 가능 코스 구성

롯데몰 → 북한산성 입구 → 불광동 먹자골목 → 연신내역 일대 코스의 총 코스 흐름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첫 거점인 롯데몰의 높은 도착 유입량 영향이 크게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시간대별 이동량은 06~11시 첫 거점의 경우 '외부/전체 → 첫 거점' 도착이동량으로 산정하고, 11~14시 이후는 코스상 인접 거점 간 OD 이동량으로 산정함.
- 인접 거점 간 연결성만 보면 첫 번째 대표 관광코스 후보인 불광동 먹자골목 → 연신내역 일대 → 롯데몰 → 북한산성 입구 코스는 11~14시, 14~17시 구간에서 높은 이동량이 확인되어 상권·쇼핑·자연관광을 연결하는 데이터 기반 후보로 볼 수 있음.
- 또한 은평한옥마을 일대 → 북한산성 입구 → 롯데몰 → 연신내역 일대 코스는 총 구간이동량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북한산성 입구 → 롯데몰 16,684명, 롯데몰 → 연신내역 일대 18,800명으로 후반부 연결성이 높게 나타남. 이는 자연관광 이후 쇼핑·상권 소비로 이어지는 코스 흐름이 실제 이동 데이터에서도 확인되는 후보로 해석할 수 있음.

대표 관광코스 후보별 시간대 이동량 흐름

No	대표 관광코스 경로 후보	06 - 11	11 - 14	14 - 17	17 - 21	총 코스 흐름량	총 구간 이동량
1	불광동 먹자골목 → 연신내역 일대 → 롯데몰 → 북한산성 입구	85,473	15,201	26,940	<u>7,252</u>	134,866	49,393
2	롯데몰 → 북한산성 입구 → 불광동 먹자골목 → 연신내역 일대	190,580	17,662	<u>1,166</u>	9,390	218,799	28,219
3	은평한옥마을 일대 → 북한산성 입구 → 롯데몰 → 연신내역 일대	9,221	<u>8,419</u>	16,684	18,800	53,124	43,903
4	연신내역 일대 → 은평한옥마을 일대 → 북한산성 입구 → 롯데몰	172,664	<u>1,053</u>	4,092	9,464	187,274	14,610

※ 06~11시 이동량은 코스의 첫 번째 거점으로 유입된 전체 도착 이동량을 의미함. 예: No.1의 85,473명은 06~11시 사이 외부 및 은평구 내 출발지에서 불광동 먹자골목으로 유입된 도착 이동량임. 11~14시 이후 이동량은 코스상 인접 거점 간 이동량 기준임.
 ※ 표 내 **빨간색 강조 숫자**는 **구간 내 최소 이동 구간**을 의미함.

03 복합 분석

연계 가능 코스 구성

최근 1개년 시간대별 구간이동량과 카드소비액을 결합하여 대표 관광코스 후보를 비교함. 각 후보는 롯데몰·연신내역 일대 핵심 앵커 거점을 포함하는 경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코스 연결성, 시작 유입 규모, 최소 구간 단절 여부, 소비 발생 규모를 함께 검토함.

- 은평한옥마을 일대 → 북한산성 입구 → 롯데몰 → 연신내역 일대 코스는 총 구간이동량 43,903명, 최소 구간이동량 8,419명, 총 카드소비액 7.48억 원으로 나타나 이동 연결성과 소비 규모가 비교적 균형적인 후보로 판단됨. 특히 북한산성 입구 → 롯데몰 → 연신내역 일대 후반부 연결성이 높아 자연관광 이후 쇼핑·상권 소비로 이어지는 대표 이용 시나리오로 활용 가능함
- 총 구간이동량 기준으로는 불광동 먹자골목 → 연신내역 일대 → 롯데몰 → 북한산성 입구 코스가 49,393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거점 간 이동 연결성이 가장 강한 후보로 확인됨.
- 총 코스 흐름량 기준으로는 롯데몰 → 북한산성 입구 → 불광동 먹자골목 → 연신내역 일대 코스가 218,79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첫 거점인 롯데몰의 도착 유입량이 크게 반영된 결과로, 롯데몰이 코스의 출발·유입 거점으로서 높은 잠재력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줌.
- 최종 대표 관광 코스는 단일 지표 1위가 아니라, **구간 단절이 작고 자연관광 이후 소비거점으로 연결되는 균형형 코스로 선정**하고자 함.

시간대별 이동량·카드소비 기반 코스 후보

No	대표 관광코스 경로 후보	총 구간 이동량(명)	총 코스 흐름량(명)	최소 구간 이동량	총 카드소비액
1	불광동 먹자골목 → 연신내역 일대 → 롯데몰 → 북한산성 입구	49,393	134,866	7,252	5.78억
2	롯데몰 → 북한산성 입구 → 불광동 먹자골목 → 연신내역 일대	28,219	218,799	1,166	3.4억
3	은평한옥마을 일대 → 북한산성 입구 → 롯데몰 → 연신내역 일대	43,903	53,124	8,419	7.48억
4	연신내역 일대 → 은평한옥마을 일대 → 북한산성 입구 → 롯데몰	14,610	187,274	1,053	9.28억

※ 총 구간이동량은 코스상 인접 거점 간 OD 이동량의 합계이며, 총 코스 흐름량은 첫 거점 유입량과 인접 거점 간 이동량을 함께 반영한 값임

Ⅲ. 분석 결과

03 복합 분석

» 관광코스 평가 지표

대표 관광코스 후보는 관광객의 일반적인 방문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오전 → 점심 → 오후 → 저녁의 시간대별 관광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구성하였음

- 코스 평가는 최근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최근 1년(2025.03~2026.02)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이동 연결성, 코스 지속성, 소비 유발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대표 관광코스 후보 평가 지표 및 가중치

코드	평가 지표	평가 내용	가중치
A	총 구간 이동량	코스를 구성하는 각 구간의 이동량을 합산한 값으로, 코스 전체의 이동 연결성과 실제 이동 수요 규모를 판단	0.35
B	총 코스 흐름량	시작 거점에서 발생하는 전체 이동 흐름 규모로, 코스 출발지의 유입 잠재력과 관광객 흡수 가능성을 판단	0.10
C	최소 구간 이동량	코스 내 구간 중 가장 적은 이동량으로, 특정 구간에서 이동 흐름이 단절될 가능성과 코스 지속성을 판단	0.25
D	총 카드소비액	코스 구성 거점의 카드소비액 합계로, 관광코스 운영 시 소비 유발 가능성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판단	0.30

※ 본 가중치는 선행연구 및 분석 목적을 바탕으로 설정하였으며, 관광코스 평가의 객관성과 분석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석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최종 적용 기준을 확정함

가중치 적용 기준

- 1) 관광 빅데이터 기반 지역관광 연구에서는 방문자 특성과 관광 소비지출액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여, 방문자 규모와 소비지출 지표가 지역관광 전략 수립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본 분석에서는 관광코스의 실제 이용 가능성과 지역경제 파급 가능성을 함께 평가하기 위해 이동 수요, 구간 연결성, 소비 유발 효과를 주요 지표로 설정함
 - 1) 코스상 실제 이동 수요와 거점 간 연결성을 판단하기 위해 총 구간 이동량에 가장 높은 가중치인 35%를 부여함
 - 2) 최소 구간 이동량은 코스 내 특정 구간의 단절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25%를 적용함
 - 3) 총 카드소비액은 지역 내 소비 유발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30%를 부여함
 - 4) 총 코스 흐름량은 출발 거점의 유입 잠재력을 나타내는 보조 지표로 10%만 반영함

1) 박성은·이금실(2023). 「관광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관광 소비지출액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관광학연구.

III. 분석 결과

03 복합 분석

▶ 대표 관광코스 후보별 시간대 평가 지표(상세)

시간대별 구간 이동량과 카드소비액을 비교한 결과, 후보 3(은평한옥마을 일대 → 북한산성 입구 → 롯데몰 → 연신내역 일대)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이동량과 소비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 균형형 코스로 나타남

No	평가 지표	구분	06-11	11-14	14-17	17-21	총합
1	불광동 먹자골목 → 연신내역일대 → 롯데몰 → 북한산성입구	구간 이동량	85,473 명	15,201 명	26,940 명	7,252명	49,393 명
		카드 소비액	1,400 만원	5,200 만원	3.97 억원	1.15 억원	5.78억 원
2	롯데몰 → 북한산성입구 → 불광동 먹자골목 → 연신내역일대	구간 이동량	190,580 명	17,662 명	1,166 명	9,390 명	28,219 명
		카드 소비액	1200 만원	1.73 억원	4,500 만원	1.10 억원	3.4억 원
3	은평한옥마을 일대 → 북한산성입구 → 롯데몰 → 연신내역일대	구간 이동량	9,221명	8,419 명	16,684 명	18,800 명	43,903 명
		카드 소비액	6,800 만원	1.73 억원	3.97 억원	1.10 억원	7.48억 원
4	연신내역일대 → 은평한옥마을 일대 → 북한산성입구 → 롯데몰	구간 이동량	172,664 명	1,053 명	4,092 명	9,464 명	14,610 명
		카드 소비액	1,100 만원	3.80 억원	1.68 억원	3.69 억원	9.28억 원

※ 06~11시 이동량은 첫 거점 유입량이며, 총합의 구간 이동량은 11~14시 이후 인접 거점 간 이동량을 합산한 총 구간 이동량을 의미함. 총 코스 흐름량은 첫 거점 유입량까지 포함한 보조지표로 종합평가에 별도 반영함.

No	대표 관광코스 경로 후보	A	B	C	D	A'	B'	C'	D'	점수
1	불광동 먹자골목 → 연신내역 일대 → 롯데몰 → 북한산성 입구	49,393	134,866	7,252	5.78억	100	54.2	84.2	40.4	73.6
2	롯데몰 → 북한산성 입구 → 불광동 먹자골목 → 연신내역 일대	28,219	218,799	1,166	3.4억	39.1	100	1.5	0	24.1
3	은평한옥마을 일대 → 북한산성 입구 → 롯데몰 → 연신내역 일대	43,903	53,124	8,419	7.48억	84.2	9.7	100	69.3	76.2
4	연신내역 일대 → 은평한옥마을 일대 → 북한산성 입구 → 롯데몰	14,610	187,274	1,053	9.28억	0	82.8	0	100	38.3

※ A~D는 원본값, A'~D'는 최대-최소 스케일링(Min-Max Scaling)을 적용한 표준화 점수임.

최종 선정 결과

후보 3은 최소 구간 이동량(C)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여 코스 단절 위험이 낮고, 총 구간 이동량(A)과 카드소비액(D) 또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최대-최소 스케일링 (Min-Max Scaling)

- 최대-최소 스케일링은 0과 1 사이의 범위로 변환하는 방법
- 각 값을 데이터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크기를 가지도록 조정

● 변환 공식

$$x' = \frac{x - \min(x)}{\max(x) - \min(x)}$$

x' : 스케일링 변환 후 값 (0 ~ 1 사이)
 x : 원본 값
 $\min(x)$: 원본 데이터의 최소값
 $\max(x)$: 원본 데이터의 최대값

Ⅲ. 분석 결과

03 복합 분석

▶ 대표 관광코스 선정 및 활용방안

최종 코스는 **은평한옥마을 일대 → 북한산성 입구 → 롯데몰 → 연신내역 일대**로, 전통문화·자연관광·쇼핑·상권 소비가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이용 시나리오를 형성함

- 해당 코스는 은평한옥마을과 북한산성 입구를 통해 주간형 문화·자연 관광 수요를 확보하고, 이후 롯데몰과 연신내역 일대로 이동하면서 쇼핑·외식·상권 소비로 확장될 수 있는 구조를 보임. 특히 북한산성 입구 → 롯데몰, 롯데몰 → 연신내역 일대 구간의 이동 연결성이 확인되어 자연관광 이후 소비 거점으로 이어지는 연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남.



01 문화·자연·소비 기능이 순차적으로 연결

전통문화 → 자연 → 쇼핑·휴식 → 상권·식음으로 관광·여가·소비 경험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코스



02 북한산성입구 → 롯데몰 → 연신내역일대 후반부 이동 연결성 확인

자연에서 도심상권으로 이어지는 동선이 주요 도로망과 역세권 거점을 통해 연결



03 롯데몰·연신내역일대의 높은 소비·이동 중심성 반영

생활인구·카드소비액·체류배율이 높은 롯데몰과 연신내역 일대를 포함하여 소비 및 이동 중심성을 반영한 대표 코스



은평구 관광객 방문 및 소비패턴 분석

감사합니다

